

코스피	코스닥
2486.64 (-1.78)	716.12 (+0.67)
금리 (미국 9년)	환율
2.330 (-0.001)	1424.70 (+5.60)

삼성디스플레이
‘올레드 패널’
애플에 독점 공급
03



‘트럼프 스톰’에 허리띠 켜 기업들 사업축소·임금삭감 투자 보다 ‘체질 개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트럼프 스톰’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국면에서 생존하기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미·중 간 무역 갈등에 따른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대외 불확실성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대미 수출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기업의 한국 시장 공략으로 수익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정치 불안
韓 수출 5% ↓... 무역적자 전환
주요 10대 품목 중 9개 모두 감소

포스코·현대제철 구조조정 속도
삼성·SK 등 비즈니스석도 제한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체질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업계는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지난달 대미 철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넘게 감소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함께 중국산 철강업체의 저가공세로 내수시장이 붕괴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이에 포스코그룹은 장인하 회장 취임 이후 사업 재편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포스코 그룹은 수소사업 투자를 축소하는 한편 현재 그룹의 주력 사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사업의 부진을 넘어서기 위해 비핵심 자산을 속여내고 일부 사업은 축소하거나 계획을 연기하는 등 사업 전략에 변화를 주고 있다. 생존을 위한 장기화 전략을 준비하면서 무리한 투자 확대보다는 내실을 다지며 기회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현대차

국내 철강업계 2위 현대제철은 지난 3월 14일부터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최근 수요 위축 등에 따른 인천공장 철강 생산라인 셧다운에 이어, 전 임원 급여 20% 삭감 등을 진행했다. 철강공장의 전체 생산라인을 전면적으로 멈춘 건 창사 이래 최초다. 여기에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까지 희망 퇴직도 진행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네트워크 등 일부 사업부 임원들에게 해외 출장 시 비즈니스 대신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고 숙소도 평상원과 같은 등급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SK그룹 배터리 계열사인 SK온 역시 임원 출장 시 이코노미석을 예약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주요 대기업들이 일제히 경영 허리띠를 졸라맨 것은 지난해 12월초 비상경영 이후 국내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후 우리나라 수출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우리 수출 실적을 보면 수출액은 339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2%(18억 7000만달러) 줄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1년 전과 같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주요 10대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0.7%) 외에 승용차(-6.5%), 철강제품(-8.7%), 석유제품(-22.0%), 자동차부품(-1.7%) 등 나머지 9개 품목은 모두 감소했다. 반도체는 아직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다.

국가별로는 미국향 수출이 14.3% 줄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중국(-3.4%), 베트남(-0.2%) 등으로의 수출도 줄었다. 유럽연합(EU·13.8%), 대만(22.0%) 등은 늘었다. 이 기간 수입액은 340억달러로 11.8%(45억 7000만달러)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최태원 “EU처럼 韓日 경제협력 강화해야”

〈대한상의 회장〉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고급두뇌 유치로 내수확대 필요
규제보다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경제와 비슷한 일본시장을 키워야 한다”며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밝혔다. 또 특정 지역에서 규제를 과격적으로 완화하는 ‘스페셜존’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태원 회장은 22일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수출중심 성장모델 한계 극복을 위한 3가지 제언을 했다.

최 회장은 먼저 한국과 일본경제에 대해 “룰테이커(rule-taker·규칙 추종자)이고 저출생, 저성장엔 별다른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동병상련”이라며 “또한 LNG 공동구매와 탄소포집 활용,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에서 협력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나 중국 등은 규모로 봤을 때 흡수·합병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경제적 협력을 통해 이익이 생길 지 장담할 수 없다”며 “독일, 프랑스 등이 협력한 EU가 건재한데 한일 협력이 강화되면 아시아 다른 국가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 EU정도 사이즈를 만들어 룰을 강요받지 않는 위치까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 과제와 대응 방향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고급두뇌 유치를 통한 내수확대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급인재들이 국내에 유입되면 소비와 세입이 증가해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소프트머니’ 창출도 언급하며 전략적 해외 투자와 지식재산권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인프라를 구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메가 샌드박스 지역에서의 학업이 곧 일자리인 스페셜 존을 만들

자는 것”이라며 “세계에서 시행한 적은 없지만 1석다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도 있어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측정해 보상하고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만에 우리의 수출액은 5.5배 늘었는데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중심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상품’ 수출중심 성장 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어 공급망 분절, 트럼프 관세 등의 글로벌 질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美 금리동결 관측에 韓 금리인하 ‘신중론’

물가·고용에 美 금리 동결 유력
韓 인하 땀 금리차 커져 자금유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상반기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당장 금리인하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오는 5월 금리를 인하하면 한·미 간 금리차가 커져 원화 가치 하락과 함께 외국인 자금유출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22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Fed Watch)에 따르면 뉴욕 금리 선물 시장의 90.9%는 연준이 오는 5월 6~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25~4.50%다.

◆물가 목표치 상회... 금리동결 무게
시장에서 미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싣는 이유는 물가 목표치(2%)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준이 물가지표로 삼고 있는 개인소비지출지수(PCI)는 2월 기준 2.5%로 1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목표치(2%)에 도달하

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물가 상승 요인도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수입산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대국들도 보복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들은 늘어난 비용 부담을 제품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 미국도 물가상승에 직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자리도 증가 추세다. 농축산업을 제외한 비농업고용지수는 3월기준 22만 8000명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7만 7000명 늘었다. 앞서 1월과 2월은 각각 14만 3000명, 15만 1000명으로 예상치를 밑돌았다. 고용인구가 늘면 기업들은 인건비를 제품가격에 반영해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한다. 물가 흐름을 보기 위해 인하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일자리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이 서서히 반영돼 6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내비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상태다. 90일 내 협상을 통해 관세가 부

과되는 만큼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韓 금리인하 시... 한·미 금리차 2%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0.25%포인트(p) 내릴 경우 한·미 간 금리차는 또다시 2%p까지 벌어진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주 현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이라며 “금통위원 6명 전원 이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5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만,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 가치 하락과 함께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을 부추길 수 있다. 지난달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11억 6000만달러 순유출 됐다.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다. 위험회피 심리로 주식투자자금이 또다시 유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이낙연 “이재명, 국회 방탄복에다 최강의 방탄복까지 입겠다는 것”
▲한 대행 “프란치스코 교황,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 남겼다” /사진 뉴시스

▲의사협회 찾아간 홍준표... “의대정원 문제, 해결책 찾겠다”
▲나경원 “안철수 후보의 찬탄·반탄 국민 갈라치기 분열주의에 깊은 우려”

▲한국노총 대선 개입 본격화... 정년연장, 주4일제 등 요구
▲사라진 北조용원·리일환... 국정원 “신변 변동 가능성”

SKT, 고객 유심 정보유출 정황… 금융계좌 해킹 등 우려

사측, 악성코드 삭제 의심장비 격리
과기부-KISA, 접수 즉시 대응착수
외부 유출땐 개인정보 탈취 등 피해
“보안체계 강화, 정보보호에 만전”

SK텔레콤이 자사 고객의 유심(USIM) 관련 일부 정보가 악성코드에 의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 정부에 즉각 사고를 접수한 뒤 사후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유심 해킹으로 인해 만일 정보 유출이 일어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2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경 내부 감사를 통해 악성코드로 인한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했다. 회사 측은 즉시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이 의심되는 장비를 격리 조치했다. 이어 20일 오후 4시 46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 사실을 신고했고, 22일 오전 10시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SKT 유심 해킹 주요내용

4월 19일(토) 23:00 SK텔레콤, 내부 감사 중 악성코드 감염 및 유심 정보 유출 정황 인지

4월 20일(일) 16:46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 정식 신고

4월 21일(월) 14:10 과기정통부, SK텔레콤에 자료 보존 및 제출 요구

20:00 KISA 전문가 현장 파견 및 기술지원 착수

4월 22일(화) 1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 통보 및 조사 협조 개시

정부 대응 현황

비상대책반 구성

-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단장
- 필요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예정

기술지원

- KISA, 현장 대응 및 장비 분석 중

현재 피해상황

- 정확한 유출 범위·항목 파악 중
- 실제 외부 악용 사례는 미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SK텔레콤으로부터 사고 접수를 받은 즉시 대응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오후 2시 10분 SK텔레콤에 자료 보존 및 제출을 요구하고, KISA 전문가들을 같은 날 밤 8시부터 현장에 파견해 기술 지원을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으며, 필요시 민관합동조사단도 꾸려 심층 원인 분석 및 제발 방

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유출 정보의 정확한 범위, 항목,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며, 외부에 악용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보안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로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피해는 단순한 개인정보 노출을 넘어 통신 인증과 금융 보안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유심은 단말기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가입자 식별 번호(IMSI), 유심 일련

번호(ICCID) 등 통신망에서 사용자의 신원을 식별하는 핵심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불법 유심 복제나 도용이 이뤄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신망에 접속된 다른 단말기로부터 개인정보를 탈취당하거나, 본인 인증을 우회당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휴대폰 번호를 기반으로 한 이중 인증(2FA) 시스템이 널리 사용되는 국내 환경에서, 유심 정보 유출은 금융계좌 해킹이나 소셜미디어 계정 탈취, 온라인 쇼핑물 부정 접속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피싱 문자나 스미싱을 통한 사회공학적 공격, 불법 개통 및 소액결제 사기, 명의 도용 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킹 피해를 입은 장비는 ▲유심 인증 및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는 HLR 또는 HSS ▲고객관계관리(CRM) 등 가입자 정보가 통합 저장된 시스템 ▲접속 인증을 담당하는 AAA 서버 ▲운영자용 내부 PC나 파일서버 등 외부 접근

이 가능하거나 관리자가 자주 사용하는 터미널일 가능성이 높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단말기 해킹이 아닌 내부 인프라 감염으로 인한 정보 유출 정황이라는 점에서, 사고 장비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거나, 인증 절차에 관여한 핵심 시스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전체 시스템 전수 조사 ▲불법 유심 기기 변경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강화 ▲피해 의심 징후 발생 시 즉시 이용 정지 및 고객 안내 조치 등의 예방책을 시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SK텔레콤의 기술적·관리적 보안 취약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보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고객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한미동맹 새롭게 다지는 논의 물꼬 틀 것” 내달부터 휘발유 가격 L당 40원 오른다

최상목 부총리, 관세협상차 美출국
한국, 우선 협상대상 ‘1그룹’ 속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22일 출국했다. 한국은 미국이 우선 협상대상으로 설정한 이른바 ‘1그룹’에 속해 있다. 1그룹 5개국은 우리와 일본·영국·인도·호주인데, 미국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상위권부터 공약을 시작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단 경제규모에서 전 세계 2위인 중국과는 이미 보복관세 엄포를 주고받았다. 또 독일(3위), 프랑스(7위), 이탈리아(8위), 스페인(14위) 등이 포진해 있는 유럽연합(EU)과도 신경전 내지 탐색전이 한창이다. 북미대륙의 캐나다(9위)·멕시코(15위) 정상들과도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지난주 백악관 내 협상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일본은 GDP 4위다. 이어 인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 D.C. 출국을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와 영국이 각각 5위, 6위에 자리하고 있다. 오는 24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 D.C.에서 양자 간 협상이 예정된 한국은 12위에 올랐다. 우리 바로 뒤가 호주(13위)다.

러시아(11위)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역 규모가 작다는 이유다. 또 다수 국가에 25% 안팎의 고세율을 매기겠다고

선언한 반면, 브라질(10위)에 대한 순위는 10%에 그쳤다. 브라질 주요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적극 투자를 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이 GDP 15위권 국가들을 거의 다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거나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시 자국 교역 상대국의 사실상 90% 이상을 섭렵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최상목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2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상대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2+2통상합의’를 갖는다. 아울러 이번 주말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 춘계총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23일 오전 출국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기재부, 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
휘발유 인하폭 15%→10% 축소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를 2개월 연장한다. 단, 인하율을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로 축소해 일부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에 있으나 고환율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소폭 낮췄다.

이번 조처에 따라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보다 휘발유(820원)는 L당 82원 낮은 738원, 경유(581원)는 87원 낮

은 494원, LPG부탄(203원)은 30원 낮은 173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으로, 기재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당시부터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인하율 20%에서 시작해 2022년 5월 30%, 같은해 7월 국제유가 급등으로 37%까지 오른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23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 후, 국무회의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생산자물가 전달과 비슷… 돼지고기 6% ↑

한은, 3월 지수 120.32 ‘보합세’

생산자물가지수가 한달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이달 소비자물가도 2%대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0.32로 전월(120.33)과 큰 변동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들이 판매하는 제품들의 가격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2020년을 기준(=100)으로 한다. 2020년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물 물가가 한달 전과 비교해 0.4% 상승했다. 농산물은 딸기(-31.2%), 무(-8.4%) 등을 중

심으로 0.6% 내렸지만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 각각 1.8%, 0.5% 올랐다.

축산물 중 돼지고기는 한달 전과 비교해 6.1% 상승했고 달걀은 6.8% 올랐다. 수산물도 물오징어(19.9%), 게(22.2%)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공산품은 1차 금속제품(0.8%) 등이 올랐으나 석탄및석유제품(-4.3%)등이 내리면서 한달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2.7%)와 증기(-1.1%)등이 내리면서 0.2% 하락했다.

서비스는 금융및보험서비스가 1.5% 감소했지만,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가 0.5% 올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美 달러 초약세에도 ‘T의 공포’에 울상

신흥국 무역 늘고, 인플레이 하락 일반적
트럼프發 관세전쟁에 효과 향유 못해

미 달러화 가치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신흥국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신흥국 달러 채무는 줄어든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전쟁이 물고온 ‘T의 공포’가 세계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면서 달러 약세 효과(수출 증가)를 향유할 수 없는 처지다.

21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 오후 3시 27분 기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8.29로 전 거래일 대비 1.1% 하락했다. 달러 인덱스는 이날 97.9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미 달러화의 종합적 가치를 나타내는 명목 실효환율(주요 교역상대국의 교역량 등으로 가중 평균한 환율)도 내리막이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경제통계(FRED)에 따르면 18일 기준 명목 실효환율은 123.3365를 기록했다. 1월 10일 130.0513보다 5.16% 떨어졌다.

신흥국에선 달러 약세가 마냥 반갑지 않다. 당장 달러로 표시된 부채 부담은

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이 인용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데이터에 따르면 신흥국 부채는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불어난 결과, 총 29조 달러(4경1600조원)였다. 2023년 기준 신흥국의 국내 및 해외 부채를 합친 이자비용만 8500억달러(약 1200조원)에 달한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자국 환율로 환산했을 때 갚아야 할 대출금이 줄어든다.

문제는 달러약세의 긍정적 효과가 희미해졌다는 점이다. 달러가 약세면 신흥국의 무역 거래는 늘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관세 전쟁의 신호탄을 쏘면서 커진 ‘T의 공포’가 이를 지워버렸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디스플레이, 애플 폴더블 스마트폰 패널 독점 공급

애플, 이례적으로 독점 공급 계약
주름 최소화 등 초격차 기술 주요
폴더블 OLED 시장 지각변동 예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탑재할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독점 공급한 것과 관련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플이 특정 업체에 디스플레이를 전량 맡긴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적 우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애플인사이드와 IT팁스터 등 정보기술(IT) 전문지와 전자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폴더블 아이폰(가칭 '아이폰 폴드')에 탑재될 폴더블 OLED 패널 공급사로 삼성디스플레이를 최근 선정했다. 삼성이 공급할 물량은 약 1500만에서 2000만대 규모로, 내년 초 양산에 돌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가칭 '아이폰 폴드') 예상 렌더링 이미지. /맥무머스 SNS 캡처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SDR' 전경.

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고객사 관련 사항은 외부 유출이 금지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애플은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LGD), 중국 BOE 등 복수의 디스플레이 공급업체를 두는 ‘멀티벤더 전략’을 유지해왔다. 주요 부품의 경우 납품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두 곳 이상에서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폴더블폰 패널의 경우 애플은 전량을 삼성디스플레이에 맡기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첫 폴더블 모델만큼은 안정성과 품질을 최우선에 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애플의 이번 결정은 폴더블폰의 핵심 과제인 ‘화면 주름 최소화’ 기술력이 좌

우한 것으로 풀이된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구조 특성상 주름이 발생하기 쉬운데,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재·공정·구조 개선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삼성디스플레이는 2019년부

터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시리즈에 폴더블 OLED를 공급하며 수년간 상용화를 이어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6년 이상 누적된 양산 경험과 수율 관리 능력이 애플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했다”며 “품질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애플이 삼성만을 선택했다는 것은 독보적 기술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재 폴더블 OLED를 대량 양산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두 곳뿐이다. LG디스플레이도 애플과 함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공동 개발해왔지만, 이번 1차 공급사 명단에서는 빠졌다. BOE는 기술력과 수율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애플의 첫 폴더블폰은 7.8인치 내부 디스플레이와 5.5인치 외부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은 약 2100달러(약 328만 원) 수준으로, 삼성

전자의 갤럭시Z폴드6보다 300~400달러 비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급 계약이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0% 수준까지 하락했던 폴더블 OLED 점유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은 2022년까지 80%대 점유율을 유지했지만,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해 폴더블폰 출하량 증가율은 2.9%에 그쳤고, 올해는 가격 부담 등으로 4% 역성장이라고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업계는 애플의 폴더블폰 진입이 침체된 시장에 다시 불을 붙이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LG, 도요타 ‘우수 공급사’ 선정

북미 전장부품 공급 역량 인정받아
글로벌 완성차 고객 협력 강화 방침

LG전자가 일본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로부터 북미 시장의 전장부품 공급 역량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도요타 북미법인의 ‘연례 공급사 비즈니스 미팅’에서 우수 공급사에 주어지는 ‘2024최고가치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LG전자가 도요타의 우수 공급사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요타 북미법인은 매년 기술력과 품질, 원가, 공급 능력, 가치 혁신 등을 기준으로 협력사의 성과를 평가해 우수 공급사를 선정하고 있다.

LG전자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수급 차질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도

고품질·고성능의 전장부품을 적기에 공급했다. 공정 개선과 물류 최적화 등을 통한 원가 절감 노력도 도요타와 함께 추진하며 북미 공급망 안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LG전자는 2011년 내비게이션 박스 공급을 시작으로 도요타와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19년부터는 도요타 전체 판매 실적의 30%를 차지하는 북미를 중심으로 차량용 통신모듈(텔레매틱스) 솔루션 공급을 확대했다.

LG전자의 텔레매틱스 제어장치는 5G 통신 기반 차량·사물간 통신(V2X) 솔루션과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등 첨단 기능을 두루 갖췄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기준 글로벌 텔레매틱스 시장에서 점유율 24.4%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LG전자는 커넥티드카 수요 증가와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대응해 글로벌 완성차 고객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텔레매틱스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이번 수상은 LG전자의 혁신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 역량, 그리고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차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완성차 고객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가 도요타 우수 공급사에 선정됐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도요타 연례 공급사 비즈니스 미팅’에서 LG전자 VS북미법인장 오해진 상무(오른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전자

/이혜민 기자

WeConnectScience

질병 앞에 거침없어야
과학이다

인류의 삶을 위해
화학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세상에 없던 신약으로 질병의 걱정을 없애자
과학으로 인류의 건강을 혁신하자

**LG화학은 과학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LG 화학

노사 줄다리기 재점화… “더 올려야” vs “지불능력 한계”

〈노동계〉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

첫 회의부터 노사 극명한 입장차
업종별 차등·제외조항 개선 촉구
노동계 “현실적인 생계비 보장돼야”
경영계 “이미 1만원… 감당 어렵다”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첫 회의부터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각자 입장을 내놓으며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 씩 총 27명 제직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근로자측은 내년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2.5%, 1.7%로 결정됐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

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올해 최임위는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전 국민 모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올해의 최임위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 정부 새시대 맞이하는 최저임금위에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실질 임금 하락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며 “치솟은 물가상승에 노동 기본급도 보장받지 못하며 투잡 쓰리잡 내몰리는 모든 일하는 노동자와 특고 플랫폼 노동자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부터 적용범위 확대하고 제외 조항 삭제해서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측 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을 넘어섰으며,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작년에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경제적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었고, 주휴 수당을 고려하면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도 보다 진전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상황 제반 여건을 잘 고려해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4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이라는 60%를 이미 초과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매출은 줄어 들고 폐업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악화된 상태”라며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IMF, 韓 성장률 ‘반토막’ 경고… 美·中·日 대비 큰 폭 하향

기재부, IMF 4월 세계경제전망
GDP 올해 기껏해야 ‘1.0% 증가’
내년에도 2.1% → 1.4%로 하향
정치불안·관세전쟁 역성장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22일(현지시간)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이 1% 선에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발 상호관세의 영향이다. 우리나라 성장률 예측치를 불과 3개월 만에 1.0%포인트(p)나 낮췄다. 이날 미국, 중국,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됐으나 한국에 비해서는 폭이 작았다.

IMF는 이날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2.0%(1월 제시)에서 1.0%로 대폭 내려 잡았다. 이는 곧 올해 GDP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전년대비 기껏해야 1% 늘거나 1%를 밑돌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상황이 좀더 악화할 시 이제 역성장(경기후퇴)을 염려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다. 여기에 정치적 불안까지 겹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중국과 일본 전망치는 각각 0.5%p, 0.6%p 내렸다. 우리에게 비해서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또 영국·호주(-0.5%p), 캐나다(-0.6%p), 인도(-0.3%p), 브라질(-0.2%p), 유로존 국가들(-0.2%p)에 대한 조정폭도 한국보다 작았다.

다만 관세전쟁을 유발한 미국 경제에 대해선 기존 2.7%에서 1.8%로 0.9%p 하향 조정했다. 멕시코 경제는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 1월 전망치(1.4%)보다 1.7%p나 낮춰 ‘멕시코 GDP 성장 -0.3%’를 제시했다.

올해 전 세계 GDP는 2024년 대비 2.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3개월

전 예측(3.3%)보다 0.5%p 내렸다.

우리나라는 내년 경기 전망 또한 회의적이다. IMF는 2026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1.4%로, 종전의 2.1%에서 0.7%p 하향했다. 내년 중국에 대해선 0.5%p, 일본은 0.2%p 내렸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 및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주가 및 시장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실제 예고보다 낮추거나, 상호 협상 등이 진전될 경우 세계 경제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IMF는 고조된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부문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과 기대인플레이션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중한 통화정책과 건전한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자본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국가별 금융·외환시장 성숙도에 맞는 적절한 개입 및 건전성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내년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손실이 다른 국가의 이득을 넘어서는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장하준 “美 관세정책 오래 못갈 것… 최대한 지연 작전써야”

〈케임브리지대 교수〉

국회서 대한민국 경제정책 전략 강연
韓 정부, 국익 고려한 신중한 접근 강조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22일 국회 초청 강연에 나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27기의 관세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며, 한국의 권한대행 정부나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 “최대한 지연 작전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장하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대한민국 경제정책 전략’이란 강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장·단기적으로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 교수는 “싸고 질 좋은 소비재를 수입해서 생긴 이윤을 기반으로 한 배

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환원해 굴러가는 것이 미국 경제”라며 “싸고 질 좋은 소비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가) 1~2년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착한 나라가 공장 지어주고 기술을 갖다 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산업을 재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자국 제조업을 40년 동안 파괴했다. 생산시설을 다 옮겨서 투자 안한 걸 어떻게 2~3년 안에 되돌리나. 체계적인 산업정책을 해도 20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산업의 재건을 위해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공장 1~2개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혁신을 하려면 질 좋은 부품 기업이 있어야 하

고, 숙련 노동자, 기업간 협동 체계, 산학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현대차만 공장 지어서 이것들이 생기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며 법치를 포기한 나라가 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수 있고 정권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이 장사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와 의 관세 협상에서 ▲최대한의 지연작전 ▲장기적인 미국 탈피 전략 ▲미국 없는 세계 경제를 위한 경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ELS 손실에 파생시장 10년 만에 최저

H지수 급락에 2.4조 손실
“연간 손익 마이너스 처음”

지난해 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확정되면서 파생결합증권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 ELS 투자 손익이 손실을 기록한 것은 금융감독원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22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3000억원 줄었다. 상환액은 82조7000억원으로 발행액보다 9조1000억원 많았다. 이에 따라 발행 잔액은 81조6000억원으로 감소하며 2014년(84조1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

록했다.

특히 ELS 발행액은 5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6000억원 감소했다. 홍콩H지수 급락으로 인한 수익구조 손상과 일부 시중은행의 판매 중단이 수요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H지수 기초 ELS의 만기 도래가 집중되면서 전체 2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 손실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연간 손익이 마이너스로 기록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LS의 구조도 변화했다. 원금지급형 ELS 비중은 전년 51.2%에서 지난해 70.9%로 증가한 반면, 원금비보장형 비중은 29.1%로 줄었다. 기초자산 구성도 종목형 ELS가 57.3%로 비중이 확대되고, 지수형 ELS는 35.5%로 감소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농업수입 안정보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가격하락

판매기간

25년 4월 ~ 11월

(품목별로 가입기간이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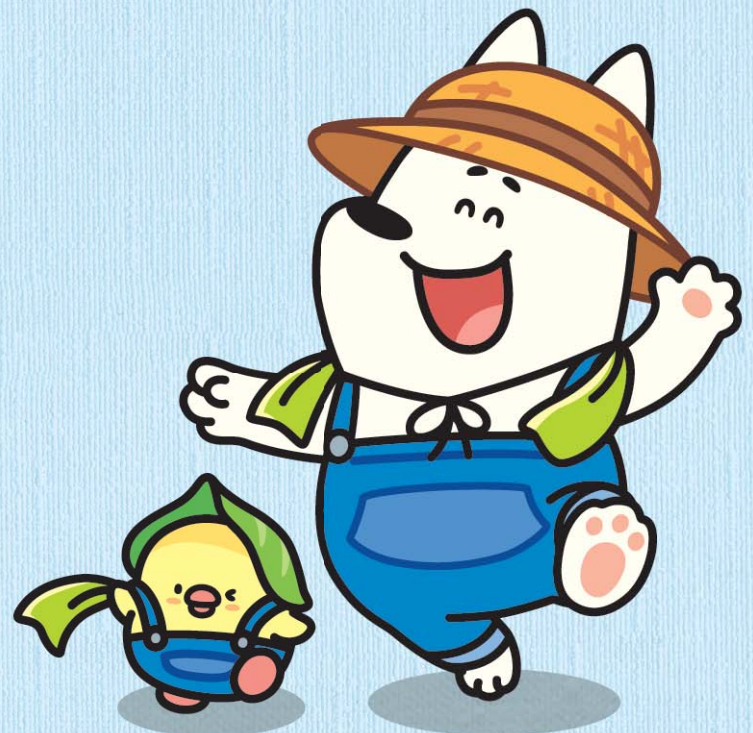
보장방식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실수입형은 일부 품목만 운영 예정

※ 가입시 자기부담비율을 꼭 확인하세요.

문의사항 : 가까운 지역 농축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1644-8900)



가입품목
(총 17개)

4월 봄감자, 벼, 감귤(만감류)

고구마, 옥수수

5월 고랭지감자

6월 콩

8월 양배추, 가을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10월 마늘, 양파, 보리

11월 포도, 단감, 복숭아

(품목별로 사업지역, 가입기간, 대상지역이 다르니 꼭 확인해주세요.)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1) 본 상품 가입 전 직원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3)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 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주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고 시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NH농협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면책 및 지급 제한 사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145944호(2025.04.09~2026.04.08)



농림축산식품부

“온실가스 감축” vs “호남권 메가시티” vs “해수부 인천 이전”

〈이재명〉

민주당 경선후보 정책행보

이재명, 기후환경·의료정책 발표
김경수, 전북·광주 찾아 스킨십 강화
김동연, 韓 센트럴파크 조성 공약도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경선 후보들이 22일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과 당심을 끌어안기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대장동 등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뇌물 사건 공판 출석하기 위해 따로 현장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 후보는 24일 오전 전북 김제 시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오후엔 광주광역시를 찾아 민주당의 간담회에 참석한다. 25일엔 전남 농업기술원을 찾아 농업과학기술진흥 간담회로 현장 행보를 강화한다.

이재명 후보는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환경 정책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 세계에 모범이 되는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가 차원의 탈(脫)플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스틱 로드맵 수립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 협력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동시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의료 정책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의대 정원 합리화를 두고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

〈김경수〉



김경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전원합의체로 열린다.

김경수 후보는 전북·광주를 찾아 당

〈김동연〉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수도권 공통 공약 및 비정규직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원과 시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했다. 김경수 후보는 오전 전주 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언급하며 “다른 두 분의 후보는 경기도지사 출신, 수도권 출신”이라며 “지역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호남, 충청, 영남에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역 소멸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는지, 그 얘기는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그래서 출마했다”고 부연했다.

김경수 후보는 오후 광주 양동시장을 찾은 뒤 취재진과 만나 “호남권 메가시티가 된다면 1년에 3조~5조원 정도의 예산을 (국가에서)직접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광주가 스스로 필요한 산업 분야를 육성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며 “언제까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구걸하는 그런 지방 자치를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변화를 꼭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국회의사당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며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인천광역시로 이전해 인천을 해양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또한 김동연 후보는 노동절을 앞두고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총 7년(84개월)이 된 청년에게 6개월 간 유급휴가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7년 일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월 평균임금(2024년 기준 204만8000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재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금 미지급 상당분, 정규직이 부담하는 해고 위험 회피 분담금, ‘노동력 희소화’ 대책 일환으로 정부의 인적투자를 위한 국고보조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청년 부동산” vs “의정갈등 해소” vs “5대 메가폴리스”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후보 공약 발표

김문수, 대학가 반값 월세존 등 제시
홍준표, 의협 방문해 “새정부서 논의”
한동훈, 첨단산업 발전·균형적 국토개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22일에도 후보들은 부동산·수도권 공약 등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강화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청년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는 3대 공약’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오피스텔 중과대상 제외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김문수 캠프는 주요 대학가 주변 원룸은 높은 월세를 받지만, 대학 기숙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일례로 수도권의 기숙사 수용률은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값월세존’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청년층의 비(非) 아파트 거주비율이 64.8%로 높지만, 2023년 공공 오피스텔 착공 물량이 1만7900호에 불과한 점에 착안해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1인가구 782만9000가구 중 2030세대의 비율이 35.8%나 된다”며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은 세세상 중과

〈홍준표〉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청년 위한 3대 부동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 공약인 ‘세대공존형 아파트’는 출산한 부부와 양가 부모세대를 위해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에도 용도변경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생활분리세대공존형 아파트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준표 후보는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제안했다. 홍 후보는 “지난 정부에서 갑자기 의사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해서 ‘무리하다. 그래서 안 된다. 의사로 가버리면 이공계 인재를 모을 수 있겠나. 100~200명 올리다가 협의해

서 더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했는데, 대구시장에 있으니 중앙정부에 영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무너진 첫번째 단추가 의료계와의 충돌”이라며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지난 2년간 해결하려고 여당도 야당도 나서지 않고 정부는 정부대로 고집부려서 방치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홍 후보는 “이번에 대선을 계기로 새 정부가 생기면 바로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온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후보는 전국에 5개의 서울급 메가폴리스를 만들어 첨단산업 발전과 균형적 국토개발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발표문에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임기 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

〈한동훈〉



한동훈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대 메가폴리스 조성’ 등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겠다고 한다”며 “이미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이 났다.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치기 바쁜 이 후보가 또 다시 행정수도 이전을 말하는 건 충청 표심을 얻어보자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 전략에 대해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연구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창업환경을 조성하며, 스마트인프라와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메가폴리스에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세로펀드 제도로 첨단산업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정주 환경 조성, 첨단 인재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으로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한덕수 “2+2 협의로 한미동맹 굳건해질 것”

내일美서 최상목·안덕근 협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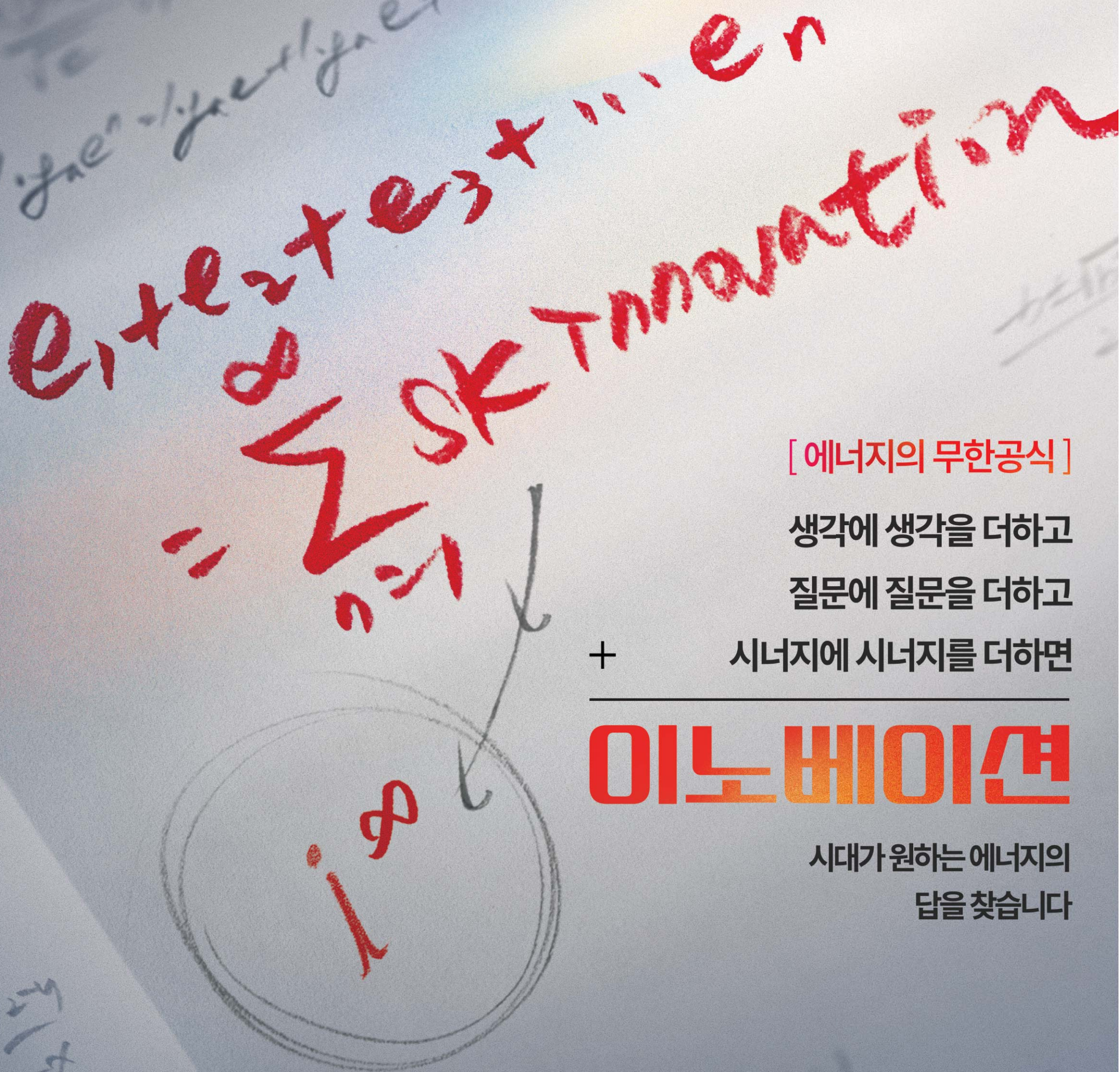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24일 예정된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에 대해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오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협의를 개최한다. 양국 통상 장관 간의 개별 협의도 진행된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 협의와 관련해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한미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 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예진 기자 syj@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에너지의 무한공식]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질문에 질문을 더하고

+ 시너지에 시너지를 더하면

이노베이션

시대가 원하는 에너지의

답을 찾습니다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에스온

연금·신탁·헬스케어까지… 은행, ‘액티브 시니어’ 공략 강화

50세 이상 ‘제2베이비붐’ 세대
청년들 보다 경제력 갖춰 주목
국민, 헬스케어 연계 자산관리
신한,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

은행들이 액티브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후에도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50세 이상의 인구를 말한다. 제2 베이비붐(1964~1974년생) 세대로 인구가 많고, 청년들 보다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연금, 신탁, 절세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시니어사업 관련 태스크포스(TF) 부서를 신설해 자산관리·연금서비스·상품개발·마케팅 등의 업무를 계획·수행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자산관리(WM)에 요양컨설팅을 도입하고, 시니어 세대를 위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KB라이프생명은 자회사 KB골



주요 은행들이 시니어를 겨냥한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우리은행 고령층 특화은행 효심 영업점.

/우리은행

드라이프케어 ‘요양원’과 ‘실버타운’을 통해 시니어헬스케어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자회사가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장기임대와 관련한 신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민은행의 개인연금, 신탁 등의 자산관리 업무와 보험사의 헬스케어, 요양 서비스를 연계해 노후 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금융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무게를 둔다.

디지털 금융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를 운영해 스마트폰 뱅킹, 인터넷뱅킹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업점에는 디지털 금융 도우미를 배치해 고객이 모바일 앱이나 자동현금출금기(ATM)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한 50+ 걸어요’ 서비스를 개선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한 50+ 걸어요는 만 50세 이상의 고객들이 8899보 이상을 걸으면 캐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한 예금 저축왕 적금’과 ‘패밀리 상생 적금’을 통해 최고 연 9%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직 시니어 계층은 아니지만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은 이들은 하나은행의 ‘하나 더 넥스트(HANA THE NEXT)’에

수입차·전기차 330만대… 車보험 손해율 90% 육박

고가 부품에 수리비도 비싸
전기차는 배터리 리스크까지
업계 “요율체계 손질 시급”

자동차보험 시장이 ‘비싼 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입차와 전기차가 330만대에 육박하면서 건당 수리비가 치솟고 대형 손보사 평균 손해율은 90% 선을 위협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부품 가격 공표, 자기부담금 확대, 전기차 전용 요율 체계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4사의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5%로 한 달 만에 6.5%포인트(p) 급등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0조66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보험손익은 97억원 적자다. 보



Chat GPT가 생성한 수입차·전기차 이미지.

험료 수입이 줄고 사고 건수가 늘어난 데다 고가 부품 교체가 많아진 결과다.

손해액을 키우는 주인공으로는 수입차와 전기차 꼽힌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수입차는 292만대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전기차는 36만6000대로 36% 늘어났다.

문제는 이들의 차값이 비싸 부품비와 수리비가 더 든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수입차 1건당 수리비 보험금은 국산차의 2.6배, 부품비만 보면 3.7배

에 달한다. 전기차는 배터리 단품 가격이 수 천 만원에 이르고 경미한 충격에도 모듈 전체 교체가 필요해 내연기관차(ICEV)보다 평균 수리비가 20% 높다.

또한 차량수리비를 구성하는 부품비·공임비·도장비 가운데 최근 10년간 부품비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수리비 전체 상승률(3.7%)을 웃돈다. 특히 수입차 범퍼 가격은 지난 2022년 한 해 13.8% 뛰어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의 두 배를 기록했다.

제조사가 헤드라이트·센서를 모듈 단위로만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분 수리’가 어려워진 것도 비용 폭등의 원인이다. 실제로 전조등 커버만 파손돼도 모듈 교체 시 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9배 가량 상승한다.

아울러 전기차의 배터리 리스크도 현실화하고 있다. 전기차는 배터리 손상 시 3000만원 이상이 한 번에 지출된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돌·요철 충격

에도 취약해 전체 교체 빈도가 높고 부품 운송·보관 과정의 화재 위험까지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연구원은 “전기차의 평균 수리비용은 내연기관차보다 20% 높고 평균 수리 기간 또한 14% 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전기차 수리에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배터리 가격이 높은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수입차와 전기차에 대한 비용 구조 손질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입차 부품비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잡히지 않는 한 자동차보험의 적자 고리는 쉽게 끊어지기 어렵다는 것.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부품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부품 의무공급기간이 실제 부품 보유 및 재고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모듈화된 제품의 공급단위가 축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보험 10건 중 3건 2년 내 해지됐다 불완전판매는 개선

지난해 보험계약의 30%가 2년 내 해지되면서 3년 이상 장기 유지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 비율과 설계사 정착률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13회차) 87.5%, 2년(25회차) 69.2%로 계약의 30%가 2년 내 해지됐다.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3년(37회차) 유지율이 50%대로 하락해 5년(61회차) 유지율은 46.3%에 그쳤다. 생명보험의 경우 저금리 시점(2021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해지 등으로 3년 차 이후부터 방카채널 유지율은 급격히 하락했다.

지난해 불완전판매 비율은 0.025%로 지속 개선 추세를 보였다. 생·손보 간 차이도 지난 2020년 0.111%포인트(p)에서 2024년 0.036%p로 축소됐다.

작년 보험설계사 수는 65만 1256명으로 전년(60만 3974명) 대비 7.8%(4만 728명) 증가했다. 전속설계사 정착률(1년)은 52.4%로 전년(47.3%) 대비 5.1%p 상승했다.

금감원은 “단기 보험계약 유지율(1년, 2년), 불완전판매 비율 및 설계사 정착률이 전년 대비 개선되는 등 판매채널의 효율성이 제고됐다”면서도 “유지율은 해외보다 약 20%p 낮고 3년 이상 장기 유지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지율 미흡 보험사에 대해서는 낮은 유지율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유지율 개선 계획을 징구할 것”이라며 “유지율을 보험사 감독·검사의 주요 관리 지표로 설정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분양가 오르니… 실수요자 공공택지 아파트로 몰린다

분상제 적용돼 분양가 부담 적어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 109.7대 1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데다 상업지구와 학교, 공원 등이 같이 체계적으로 개발돼 주거 편의성이 높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충북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위치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는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109.7대 1로 집계

됐다. 일반공급 152가구에 1만6000건이 넘는 접수가 몰렸다. 경기 고양창릉지구 역시 S5블록 전용 84㎡에서 최고 4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택지개발사업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해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거단지와 함께 공원, 상업지구, 초·중·고교 등의 인프라가 구획을 나눠 계획적으로 조성돼 신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 부담도 적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와 체계적인 도

시 계획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며 “특히 개발이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교통망 확충 개발 계획 등이 많아 추후 시세 차익까지도 노릴 만 하다”고 전했다.

대우건설·LH는 경기도 하남시 하남교산지구 A-2BL(천현동)에서 분양하는 ‘교산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본청약을 이달 진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규모다. 전용면적 51~59㎡ 총 1115가구를 사전청약 당첨자(본청약)와 일반에게 공급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사업으로 진행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

용됐다.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브랜드로 공급되며,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지구 A76-2BL에서 ‘동탄 포레파크 자연엔 푸르지오’를 다음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17개 동, 전용면적 84·97·142㎡ 총 1524가구 규모다.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사업으로 공급되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동탄호수공원과 장지1호공원 등 다양한 공원시설이 인접해 있고, GTX-A 동탄역을 이용할 수 있다. 신분당선 연장 추진 및 2028년 개통 예정인 동탄트램 208정거장이 단지 앞에 예정되어 있어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현대차그룹, 모빌리티 혁신 이끌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코레일과 스마트 시티 사업 추진
미래 모빌리티 최적화 환경 구현
민간기업·공공기관 협업 지속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친환경차 확대 등 미래 모빌리티 현실화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그룹이 구상하는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의 개념을 넘어 이동의 가치, 공간의 가치 등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바로 목적기반 차량(PBV),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중심으로 융합된 모빌리티를 말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손잡고 역세권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그룹과 한국철도공사는 전날 서울 용산구 코레일 스마트역세권사업단에서 미래 모빌리티 혁신 선도를 위한



한국철도공사 정정래 부사장(왼쪽), 현대자동차그룹 GSO 김홍수 부사장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코레일 스마트역세권사업단에서 미래 모빌리티 혁신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홍수 현대차그룹 글로벌전략최고책임자(GSO) 부사장과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요소들을 공동 기획하고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등 미래 솔루션에 최적화된 환경과 스마트 시티 전반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현대차그룹은 끊임없는 이동성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를 활용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에 최적화된 도시 환경 조성하고 서비스 도입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협업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 중심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그룹의 역량을 강화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룹의 역량과 솔루션을 종합해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고자 하는 현대차그룹의 의지와 사람, 세상, 미래를 이어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한국철도공사의 뜻이 합쳐져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양사는 ▲역세권 개발사업지 등 신규 스마트 시티 사업 추진 ▲한국철도공사 사업지 내·외부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등을 협력한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도입을 위한 인프라 및 솔루션 계획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최적화된 스마트 시티 모델 수립에 협력하며 한국철도공사는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역세권 개발 지구 등에 모빌리티 중심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것에 앞장선다.

김홍수 현대차 부사장은 “역세권에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및 연계 서비스를 적용해 새로운 이동 편의는 물론 라

이프 경험을 혁신하는 스마트 시티 모델을 기획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기회”라며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및 솔루션 혁신을 공동 모색하고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전략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에도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기획, 실증, 조성 등 스마트 시티 구축 전 영역에 이르는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민간 기업 및 공공 기관과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래 모빌리티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혁신적 모빌리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며 “도시와 모빌리티는 그 시작부터 우리 인간을 위해 개발되고 발전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더욱 넓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인간 중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빌리티를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 수소분야 등 그룹 리밸런싱 본격화

연초부터 수소사업 조직 축소
플러그 파워, 지분 매각 전망

미국 수소연료전지 업체 플러그파워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조 단위 투자를 단행한 SK그룹의 손실률이 97%를 기록했다. 플러그 파워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SK그룹이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지난 2021년 SK(주)와 SK E&S(현 SK이노베이션 E&S)가 각각 7억5000만 달러(8000억원), 총 15억달러(약 1조6000억원)를 투자해 플러그파워 지분 9.9%(5140만주)를 주당 29.3달러에 매입했다. 이후 SK E&S는 플러그파워와 합작법인(JV) ‘SK플러그하이버스’를 설립해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소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수소시장에 적극 뛰어들었다.

하지만 플러그 파워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SK의 손실률은 100%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1주당 0.92달러를 기록하면서 1달

러가 붕괴됐고, 전날에는 0.79달러까지 하락하면서 SK의 손실률은 97.3%를 기록했다.

플러그 파워 시각총액은 현재 1조758억원으로 SK가 투자한 1조6000억원 보다 가치가 낮은 상황이다. 또한 뉴욕 증권거래소의 나스닥에서 상장폐지당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주당 1달러 이상의 주가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나스닥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플러그 파워에 대한 악재가 지속되면서 SK측도 엑시트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용호 SK㈜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달 SK㈜ 정기주주총회에서 “플러그파워의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적극적인 리밸런싱을 하겠다”며 “투자 시점 대비 손실이 큰 상황인 것은 인지하고 있어 적정가치에 대한 엑시트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플러그 파워 매각에 대해 처음으로 말했다.

수소 에너지 시장은 초기 기대와 달리 성장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수소생산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고, 매출은 증가중이지만 무리한 연

구시설 투자 등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SK도 이를 인지한 듯 올해 초 SK이노베이션 E&S 수소사업 조직을 ‘부분-본부’ 체제에서 ‘본부-실’ 체제로 개편했다. 수소사업부문은 ‘신에너지사업본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수소라는 이름을 단 ‘본부급’ 조직이 사라졌고 신에너지사업본부에서는 수소 이외에 사업을 진행한다. 이처럼 수소 산업의 더딘 성장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SK도 조만간 플러그 파워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SK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매각 시점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룹 리밸런싱 차원에서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수소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알려졌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고 수소 경제를 꽃 피우기 위해서는 정책 도움이 필요하다”며 “미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화석 연료에 더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번 집권기에는 정책지원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한화시스템, 4번째 軍 정찰위성 발사

연내 425 사업 마지막 위성 발사

대한민국의 4번째 정찰위성이자 3번째 합성개구레이다(SAR) 위성이 발사됐다.

한화시스템은 군 정찰위성 사업(425 사업)의 4호기 위성이 2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너베럴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4호기 위성은 앞서 발사된 SAR 위성인 2·3호기 위성과 마찬가지로 ‘경사궤도’로 지구를 돌며 한반도를 하루 4~6회 촬영한다. 적도로부터 일정 각도만큼 기울어진 궤도를 의미하는 경사궤도는 재방문 주기가 짧아 위성이 하루에도 여러 번 특정 지역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으로 진행 중인 425 사업은 EO·IR 위성 1기와 SAR 위성 4기 등 총 5기의 한반도



22일 오전 9시 48분(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너베럴 우주군기지에서 대한민국 정찰위성 4호기가 실린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발사체가 발사되고 있다.

/한화시스템

및 주변 감시·정찰용 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4번째 위성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의 차세대 우주무기체계이자 핵심전력 자산 중 하나인 ‘킬체인’의 완성률에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425 사업의 마지막 위성인 정찰위성 5호기이자 SAR 위성 4호기는 연내 발사될 예정이다.

/이승용기자

HD현대중, ‘USV 개념설계 사업’ 수주

〈전투용 무인수상정〉

유무인복합체계 선도적 역할 기대

HD현대중공업이 우리 해군과 함께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각광받는 전투용 무인수상정(USV) 개발을 본격화한다.

HD현대중공업은 해군의 차기 핵심사업이 될 ‘전투용 무인수상정 개념설계 사업’을 해군본부로부터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HD현대중공업은 현존 최강의 이지스 구축함 건조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해양 안보를 지킬 차세대 함정 개발을 이끌게 됐다.

전투용 무인수상정은 유인함정을 대신하여 최전방 해역에서 탐색과 근접 교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

으로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축이 된다.

HD현대중공업은 이달 중 착수회의를 열고 오는 12월까지 약 8개월간 전투용 무인수상정에 적용되는 성능, 기술 등에 대한 요구사항 및 획득방안을 결정하는 전투용 무인수상정 개념설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은 다변화하는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임무 수행 솔루션을 개발하고, 유인함정 이상의 신뢰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한 전투용 무인수상정을 설계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전투용 무인수상정을 필두로 유무인복합체계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기아 ‘2025 봉고 III EV’ 출시

기아가 국내 소상공인의 동반자 역할을 해온 대표 소형 트럭의 상품 경쟁력을 높인 ‘더 2025 봉고 III EV’을 출시하고 22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더 2025 봉고 III EV는 기존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급속 충전시간 단축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향상 ▲배터리 지상고 개선 ▲충전구 조명 적용 등 실용성과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전기차 충전기 사업 철수

자회사 하이비차저 청산 절차

LG전자가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서 손을 뗀다.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와 가격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시장 환경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진출 3년 만에 사업을 접기로 했다.

22일 전자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에코솔루션(ES)사업본부 산하의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종료하고 관련 인력을 내부 다른 조직에 재배치하기로 했

다. 충전기 제조를 맡아온 자회사 하이비차저(구 애플망고)는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기존 공급처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어갈 방침이다.

LG전자 측은 이번 결정을 전략적 리밸런싱의 일환으로 설명하며, 향후 냉난방공조(HVAC), 데이터센터 열관리 솔루션 등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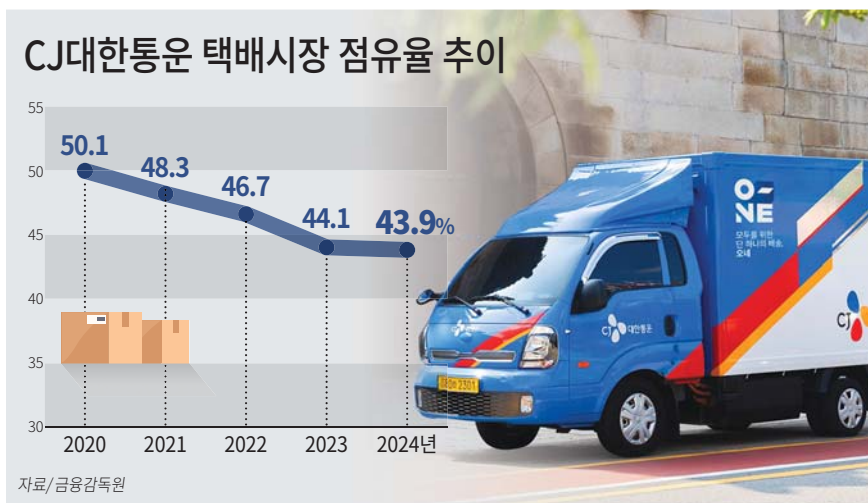
CJ대한통운, 택배 점유율 하락 쿠팡 공세에 ‘선두 자리’ 내줬다

CJ대한통운, 점유율 4년새 6% ↓
집화량 16.8만개서 16.2만개로 줄어
쿠팡 공세에 2024년 기준 2위로
온라인·국경넘는 배송에 경쟁 격화

택배업계 1위였던 CJ대한통운이 성장하는 시장과 달리 거꾸로 가고 있다. 한때 50%를 훌쩍 넘어섰던 점유율이 갈수록 하락하며 40%대도 위태한 상황이다. 쿠팡의 택배시장 공략에 CJ대한통운은 몸집이 점점 줄고, 결국 2위인 쿠팡에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0년 당시 50.1%에 달했던 CJ대한통운의 택배시장 점유율은 48.3% (2021년)→45.7% (2022년)→44.1% (2023년)로 각각 하락하더니 지난해엔 43.9%까지 떨어졌다. 2020년 대비 지난해 현재 쿠팡을 제외한 국내 총 택배물량은 33억7400만개에서 36억9100만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CJ대한통운의 집화량은 16만8900개에서 16만1900개로 하락했다.

지나해 기준으로 CJ대한통운 매출(12조1168억원)에서 택배사업은 전체의 30.8% (3조7289억원)로, 글로벌사업(36.6%·4조4329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대신증권 양지환 연구위원은 “쿠팡이 CJ대한통운과 같은 택배회사들에게 의뢰해 처리하던 물량을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를 통해 배송하다보니 점유율이 빠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쿠팡로지스틱스는 2021년 당



시 1155억원이던 영업수익(매출액)이 이듬해인 2022년엔 7685억원으로 크게 늘더니 2023년 2조6217억원, 2024년 3조8349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2021년에 -16억원으로 손실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이후 30억(2022년)→262억(2023년)→551억원(2024년)으로 크게 증가했다.

인건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만 놓고봐도 쿠팡의 거센 시장 공세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2021년 당시 1009억원 수준에 그쳤던 쿠팡로지스틱스 인건비는 지난해 1조295억원까지 3년새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쿠팡로지스틱스는 쿠팡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쿠팡로지스틱스의 택배시장 점유율은 26.1%로, 32.5%인 CJ대한통운에 이어 2위였다. 하지만 지난해 반기 기준으로 쿠팡로지스틱스는 36.3%를 기록하며 기존 1위였던 CJ대한통운

(28.3%)을 훌쩍 앞질렀다. 택배시장만 놓고보면 1·2위 자리가 바뀐 셈이다. 이런 가운데 택배시장은 점점 커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2년 211조원에서 2023년 229조원, 지난해엔 242조원까지 늘었다.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트랜스포트 인텔리젠스에 따르면 원화 기준으로 2022년 107조원 수준이던 글로벌 초국경 택배시장 규모는 매년 두자리 이상 성장하며 2026년엔 173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쿠팡의 주7일 배송에 이어 CJ대한통운도 올해부터 ‘매일 오네(O-NE)’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한진도 현재 주7일 배송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당장 주7일 배송 대신 자사의 ‘약속배송’을 더욱 확대해 고객들의 수요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수요 둔화에도… 철강업계 “가격 올린다”

수요 부진 속 H형강 5만원 인상
중국 저가 공세·시장 왜곡 맞불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수요 둔화 장기화 속에서도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H형강 등 구조물용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을 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경기 위축 속 가격 인상이 실적 방어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중국 저가 물량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자칫 가격 인상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내달부터 H형강 가격을 5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고환율 기조와 인건비, 공장 가동비 등 제품 생산 비용 전반이 상승한 상황에서 제품 가격에 원가 부담을 일부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철강 제품 전반의 수요가 둔화되고 업황이 침체된 가운데 가격 인상 자체가 기업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 반응에 따라 가격 인상이 수익성 방어에 아닌 추가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실적에도 위축 조짐이 나타나



현대제철 인천공장 H형강 생산 모습. /현대제철

고 있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봉형강 국내 매출액은 7조 4543억원, 해외수출액 494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5%, 21.3% 줄었다.

글로벌 철강 수요도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패스트마켓은 관세와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북미와 동남아시아 철강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인도와 북미는 낮은 인프라 지출과 관세 변화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철강생산자협회 역시 올해 1분기까지 철강 소비량의 뚜렷한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철강협회는 2025년 글로벌 철강 수요가 전년 대비 1.2% 감소한 17억7200만톤

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최근 시중 유통점들이 선현금 조건의 저가 거래를 확대하면서 시장가격 왜곡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철강사들이 고사한 가격 인상분이 실제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같은 가격 체계를 바로잡고 시장 질서를 재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5월 단가 인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봉형강 제품 가격은 하향 곡선을 그렸다. 동국제강 봉형강 수출 가격은 지난 2023년 톤당 102만원대에서 지난해 86만원대로 약 15% 하락했다. 같은 기간 내수 가격도 톤당 104만원에서 93만원대로 약 9% 떨어졌다. 현대제철 또한 지난해 봉형강 평균 판매 단가는 톤당 116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5.9% 하락했다.

철강사들은 가격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공장 보수 및 재고 조정을 통한 생산도 병행하는 모습이다. 앞서 현대제철은 4월 한 달간 인천제철소의 철근 공장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하며 공급 조절에 나선 바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中企 옴부즈만, 대구·경북 규제애로 청취

조달청 위탁계약금 확대 등 목소리
崔 “기업 체감 성과에 최선 다할 것”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대구·경북지역에서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나섰다.

현장에선 인증 비용 지원, 조달청 위탁 계약금액 확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 대상 범위 확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에 농업 분야 추가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22일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에서 ‘S.O.S. Talk’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인코아는 국내외 임상시험 및 의료기기 인증 취득 시 많은 비용이 든다며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최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경북 영천에서 친환경 재생원단 등을 생산하고 있는 A기업 대표는 ‘소기

업 공동사업제품 우선 구매제도’와 관련해 조달청 위탁 계약금액을 현재 10억원 미만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1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보니 판로 확대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최 옴부즈만은 “기준금액을 20억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면서 “그 결과 조달청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대와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준금액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규제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협의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CDP 기후변화 대응 부문 ‘리더십 A’ 획득

SK네트웍스, 2년 연속 획득

SK네트웍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ESG 환경정보 공개 플랫폼으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았다.

SK네트웍스는 지난 17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2024년 기업별 ESG 등급에서 기후변화대응 부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나해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SK네트웍스의 탄소중립 실천 노력과 정보공개 체계가 글로벌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은 것이다. CDP는 글로벌 주요 상장 기업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서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정보공개 투명성을 다각도로 평가해 매년 등급을 부여한다.

2024년 CDP 기후변화 부문 평가에는 전 세계 2만4800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 중 약 1.7%에 해당하는 424개 기업이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고, 국내에서는 SK네트웍스를 포함한 19개 기업만이 엄격한 평가기준을 통과했다. 이번 평가에서 SK네트웍스는 ▲SBTi 기반 감축 목표 설정 ▲리스크, 기회 요소 식별 및 구조화된 평가 프로세스 구축 ▲기후 전략을 통합한 사업 전략 수립, ▲Scope 1·2 배출량 관리 등 다수의 핵심 영역에서 최고 등급인 ‘A’를 받았다.

CDP의 기후변화 부문 평가 등급은 기업의 정확한 현재 상황 파악 수준과 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탄소 절감 계획 등 CDP가 요구하는 ESG 평가 기준에 기초해 매겨진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물류 자동화 플랫폼 ‘ORCA’ 첫 공개

현대글로벌비스-알티올 공동개발

현대글로벌비스는 물류 자동화 솔루션 자회사 알티올이 22일부터 25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국제 물류산업대전’에서 차세대 물류 자동화 플랫폼 ‘오르카(ORCA)’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알티올과 현대글로벌비스가 공동 개발한 오르카는 복잡한 물류 제어 과정을 혁신적으로 단순화해 누구나 손쉽게 제어 설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물류센터 레이아웃을 직관적으로 구성, 화물 속성 부여 및 경로 설정이 가능한 기능을 통해 자동화 제어를 한층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어댑터 기반의 장비 연동 기능을 갖췄으며, 상위 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전체 작업 흐름을 통합적으로 모

니터링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알티올은 이번 전시에서 다기종 자율이동로봇(AMR)을 통합 제어하는 크로프플랫폼 AMR시스템, 고밀도 보관 솔루션 6-웨이 셔플 저장시스템 등을 선보인다.

알티올 관계자는 “물류 제어의 혁신적 단순화라는 비전을 실현한 대표 기술들을 실물로 확인할 기회”라며 “현대글로벌비스와 협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글로벌비스는 2023년 알티올 지분 70%를 확보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추고, 물류 자동화 기술 내재화를 통한 글로벌 스마트물류솔루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일시적으로 ~~안사셨다~~
헬로렌탈로 **잘사셨다!**

요즘 **잘** 나가는 가전!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헬로렌탈
바로가기 Q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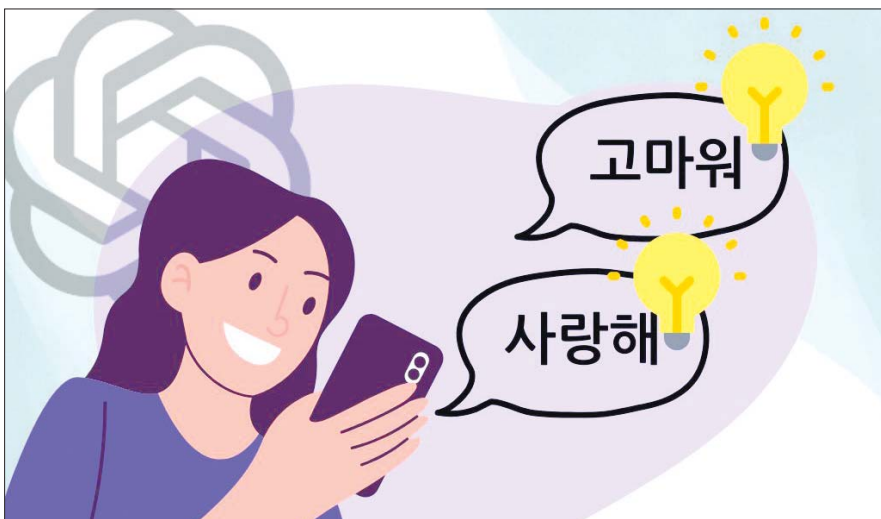
AI에 무심코 건넨 인사… 수천만 달러 전기요금 발생시킨다

입력 텍스트, 문자열 단위로 토큰화 대화가 길어질수록 연산량 급증 짧은 인사에도 수천번의 연산 실행 평균 이용량, 전구 11시간 켜는 수준

인공지능(AI) 모델에 무심코 건넨 ‘고마워’ 한마디가 전구를 켤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모델에게 사람들이 무심코 건넨 공손한 인사말이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AI 모델이 작동할 때, 사람이 입력한 문자와 모델이 생성한 응답을 모두 ‘토큰(token)’ 단위로 처리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연산 자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토큰은 AI 모델이 이해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자다.

22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AI 모델이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답변을 출력하기 위한 과정에서 고난이도·대용량 연산이 비용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마워’



챗GPT 이용 중 ‘고마워’와 같은 공손한 인사말이 막대한 전력량을 소모한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서현 기자

‘미안해’와 같은 공손한 표현을 덧붙이는 것도 AI 모델 특유의 알고리즘으로 인해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켰다.

최근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사람들이 챗GPT에 ‘제발’ ‘고맙습니다’를 반복할 때마다 전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하다”고 묻자 “수천만

달러의 전기요금을 발생 시켰다”고 답했다.

사람들의 공손한 표현만으로도 수천만 달러의 비용이 소모되는 이유는 생성형 AI가 텍스트를 분해해서 이해하고 연산, 출력하는 과정의 특수성 때문이다.

GPT 모델은 입력 텍스트를 자주 등

장하는 문자열 단위로 분해해 토큰화하며, 한국어의 경우 보통 한 음절 또는 짧은 단어 하나가 1토큰 정도로 처리한다. 영어는 4~5자당 1토큰 정도가 소모된다. 이에 따라 ‘사과’는 2토큰, ‘사랑해’는 3토큰이 된다. 여기에 출력시에도 토큰을 하나씩 생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화가 길어질수록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샘 올트먼의 말대로 ‘고마워’ 한 마디도 수천 번의 연산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러한 연산 과정에서 탄소 발생 논란도 일어난다. GPT-4 등의 대형 모델은 연산을 위해 수천 개의 고성능 GPU가 연결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데, 토큰 수가 많아질수록 해당 GPU 자원의 점유율과 동작 시간도 함께 증가하고, 필요로 하는 전력량 또한 비례해 늘어난다.

대표적인 AI 모델인 챗GPT를 기준으로 할 때 1토큰은 단순계산 기준 입출력 난이도에 따라 최소 0.000001kWh(1μWh)에서 최대 0.000005kWh(5μWh)

를 소모한다. 이는 전구를 약 0.4초에서 2초 가량 켤 수 있는 수준이다. 즉, ‘사과’는 9W 전구를 0.4초, ‘사랑해’는 4초 가량 켤 수 있게 된다.

챗GPT를 다양한 고난이도 연산에 사용하는 이용자들(개발자 등)의 평균 이용량인 1일 1만~2만 토큰은 0.01~0.1kWh로, 9W 전구를 약 1시간 6분에서 11시간 6분 켤 수 있는 수준에 달한다. 이는 생수 40병 분량의 물을 1℃ 데우는 데 드는 전력량이다.

토큰에 따른 비용이 막대하게 늘어난다. GPT-4 등의 대형 모델은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토큰 사용량에 따라 정해진 AI 모델 이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 토큰나이저 최적화나 출력 제한 기술도 고도화하는 추세다.

IT 업계 관계자는 “최근 AI 기술은 전력 소모량을 줄이고 데이터 입출력을 효율화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사람들이 AI에도 ‘고마워’ ‘사랑해’ 등 인사를 하는 현상은 무척 흥미롭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I, 이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정보도 학습” 카카오엔터, AI로 숏폼 제작 시간·비용 절감

SPRI “LLM 기반 AI가 발전할수록 개인 식별 가능성 ↑… 개인정보 침해” 관련 법적근거·정보 은폐기술 등 필요

생성형 AI(인공지능)의 학습에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데이터가 이용되면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적·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2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이달 펴낸 ‘소프트웨어 중시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가 발전할수록 개인 식별 가능성이 증가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진다.

보고서는 “현재 기업들은 개인이 제공하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해 개인 식별 가능성을 고도화하는 중”이라며 “LLM 개발회사는 데이터 기업이나 데이터 결합 기관 등에서 획득한 정보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확보한 다양한 데이터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기업이 정보주체보다 개인을 더 잘 아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개인을 이해하려는 욕구는 조직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기업은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장재영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안전활용본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생성형 AI는 이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정보도 학습하고, 이용자가 모르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까지 생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의 존재 자체를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의 실질적 행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될 위험이 높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AI가 학습한 데이터에서 특정인의 직업·소득 수준·정치적 성향 등을 추론해 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이런 정보가 생성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또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데이터임에도 AI가 생성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이 약화되면 사용자의 주체성이 침해되고 소비자와 기업 간 데이터 처리 관련 정보 격차가 심화되며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개인정보 생성 관련 법적 근거 손질 ▲학습 데이터에 개인정보 최소화 ▲정보주체 권리 보장 기술 적용을 제안했다.

장재영 연구위원은 “공개된 정보의 활용과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 생성에 대한 규율 근거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또 합성 데이터, 차등 프라이버시 등 개인정보를 은폐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면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합성 데이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알고리즘을 이용해 원본 데이터의 구조적·통계적 속성을 재현한 데이터이고, 차등 프라이버시는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해 개별 데이터의 기여도를 숨기면서 전체 데이터 패턴을 유지하는 기술이다.

장 연구위원은 “LLM은 한번 학습된 정보를 쉽게 삭제할 수 없어 개인정보 삭제 요구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면서 “언러닝 기술을 적용해 특정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학습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법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

‘헬릭스 숏츠’ 공식 론칭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AI(인공지능) 기술로 숏폼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카카오엔터는 22일 ‘헬릭스 숏츠’를 공식 론칭했다. 헬릭스 숏츠는 웹툰을 짧은 영상으로 자동 제작하는 AI 기술 기반 서비스다. 기존에는 숏츠 한 편 제작에 약 3주의 기간과 200만원 가량의 비용이 투입됐는데, 헬릭스 숏츠로 3시간여만에 6만원 수준으로 제작 가능해졌다.

사용자들은 작품 줄거리, 관전 포인트 등이 담긴 영상을 카카오페이지 앱 내 화면에서 만나볼 수 있다.

헬릭스 숏츠에는 텍스트 중심의 기존 AI와 달리 이미지와 감정까지 정교하게 분석하는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됐다. 웹툰의 ▲대사 ▲표정 ▲컷

구성 ▲말풍선 등을 심층 분석해 줄거리를 요약하고 내레이션을 만들어 낸다. 웹툰 해설 문장은 문자 음성 변환 기술로 구현되며, AI가 스토리 감전에 따라 컷과 이미지 효과(줌 인, 좌우 삽입 등), 배경 음악을 조합해 몰입감 높은 숏츠를 완성한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23년 헬릭스 숏츠 기술 개발을 시작해 이듬해 8월 첫 테스트를 실시하고, 같은해 9월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냈다. 이어 작년 11월부터 헬릭스 숏츠를 본격적으로 도입했고, 올 2월을 기점으로 최근 30일 내 웹툰 열람 이력이 있는 전체 사용자에게 헬릭스 숏츠 적용을 완료했다. 현재 카카오페이지에 노출되는 전체 숏츠 가운데 약 40%가 헬릭스 숏츠로 만들어진 영상이다.

카카오엔터는 헬릭스 숏츠비율을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CJ SW 창의캠프’, 국무총리표창 수상

CJ올리브네트웍스 사회공헌 프로그램

CJ올리브네트웍스가 사회공헌 프로그램 ‘CJ SW 창의캠프’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정보통신 유공 정부 포상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보방송통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의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CJ SW 창의캠프는 회사가 소외계층 청소년의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운영해온 프로그램이다. IT(정보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



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가 ‘2025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정보통신 유공 정부 포상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받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를 경험하며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CJ SW 창의캠프에서 교육받은 아동·청소년은 1만4700여명에 달한다. /김현정 기자

LG U+, AI 기술로 환자 문의 실시간 대응

바른세상병원에 AICC 도입

LG유플러스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관절·척추 특화 병원인 바른세상병원에 인공지능 기반 상황인지 응대형 의료상담 컨시어지(AI 컨택센터, AICC)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바른세상병원에 도입된 AICC는 AI

콜봇을 기반으로 환자의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는 서비스다. 병원 대표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중 예약 확인·변경·취소, 병원 위치 안내, 제증명 발급 등 단순 반복적인 상담은 AI가 자동 처리하고, 상담 직원은 보다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LG유플러스는 전국 200개 이상의

병원 컨택센터에 통신과 상담 시스템을 공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AICC를 제작했다. 전문 협력사인 나스카랩과 함께 OCS(처방전달시스템), EMR(전자 의무기록) 등 병원 고유 시스템과 연동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LG AI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한 STT/TA(음성인식·텍스트분석) 기술을 활용해 자연어 이해도와 상담 응답 정확도를 높였다.

/김서현 기자

‘관세 무풍지대’ 증권株 선방… ‘호실적’ 미래에셋, 관심집중

KRX 증권지수 주간 8.57% 상승
삼성·NH 등 커버리지 증권사 4곳
1분기 순익 7% ↑ 1조104억 예상

미래에셋 5거래일 간 7.68% 뛰어
목표주가 11만원, 19.6% 상향조정

‘관세 무풍지대’로 평가받는 증권주가 반사이익을 누리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뛰어난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7거래일 연속 오르며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 증권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4% 상승한 798.87을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증권주의 매력력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지난주부터 현재까지는 8.57% 올랐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1

분기 커버리지 증권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의 합산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7% 증가한 1조104억원을 예상한다”며 “전년 동기 대비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감소했음에도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안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수익성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권업종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의 수익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주주 환원수익률이 가장 높은 NH 투자증권을 최선호주, 실적 반등(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미래에셋증권을 관심종목으로 유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5거래일 동안 7.68% 뛰었으며, 미래에셋증권우도

8.13% 상승했다. 이는 컨센서스(실적 예상치)가 공개된 증권사 중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같은 기간 한국금융지주는 5.28%, 삼성증권 5.70%, NH투자증권 6.16%, 키움증권이 7.59% 올랐다. 관세 회피 종목으로 증권주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의 호실적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시장 내 실적 예상치가 제공되고 있는 5개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NH투자·키움증권 등) 중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하게 전년 동기보다 1분기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36.63% 증가한 233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이 외에 4개 증권사들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이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 10%대 증가세가 전망되는 곳은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국투자증권(3.7%), 삼성증권(-5.8%), NH투자증권(-6.1%), 키움증권(-16.1%) 순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분기 반영된 투자자산 손상 약 600억원의 기저효과와 해외법인 이익 증가가 반영되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지배주주순이익을 2383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8.8% 상회한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7% 증가한 수치다. 목표주가도 11만원으로 기존보다 19.6% 상향 조정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KB자산운용

美 천연가스산업 투자 테마형 ETF 선보여

KB자산운용이 22일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의 천연가스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테마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RISE 미국천연가스밸류체인ETF’는 생산·수송·액화 및 수출 등 천연가스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들로 구성했다.

천연가스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과도기 에너지원(Bridge Energy)’으로, 향후 에너지 믹스의 중요한 축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유럽 및 아시아의 수출 증가, 천연가스 액화(LNG) 인프라 확장, 수소 연계 수요 확대 등으로 산업의 구조적 성장이 예상된다.

‘RISE 미국 천연가스 밸류체인ETF’는 ‘Solactive US Natural Gas Value Chain Index’ 지수를 추종한다. 밸류체인을 생산(30%), 인프라(50%), 수출(20%) 비중으로 구분해 총 15개 기업에 분산 투자한다.

/신하은 기자

“몸 갖춘 ‘피지컬 AI’ 시대… ETF 점유율 3% 목표”

NH아문디자산, ETF 출시 간담회
‘HANARO 글로벌피지컬AI 액티브 ETF’
자율주행차·스마트 제조시스템 등
의사결정·행동하는 AI기술에 투자

AI는 더 이상 데이터만 계산하는 ‘뇌’에 머물지 않는다.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걷고, 조작하는 ‘몸’을 갖춘 인공지능,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NH-Amundi자산운용은 이러한 기술 진화 흐름에 맞춰 피지컬 AI 산업에 투자하는 ETF를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지부진했던 ETF 사업에 전면 쇄신을 선언한 가운데, ‘움직이는 AI’가 NH-Amundi의 반격 신호탄이 됐다.

길정섭 NH-Amundi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HANARO 글로벌피지컬AI 액티브ETF’ 간담회에서 “AI는 처리와 추론뿐 아니라 계획과 행동이 가능한 단계로 진입했다”며 “피지컬 AI는 우리의 일상 풍경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HANARO ETF는 이 변화의 최전선에서 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ETF 사업분부를 독립 사업부문으로 격상하고, 리테일 상품 기획력과 마케팅 인프라를 보완해 ETF 시장에서 점



(왼쪽부터)김승철 NH-Amundi자산운용 ETF 투자본부장, 한수일 NH아문디자산운용 ETF투자부 문장,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 본부장이 기자들과 질의응답 세션을 가지고 있다. /허정윤 기자

유효율 3%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NH-Amundi는 지난해 말 조직 개편 이후 ETF 상품 경쟁력에 대한 전면 재정비에 돌입했다. 김승철 ETF투자본부 본부장은 “리테일 시장에 맞는 상품 개발 역량이 부족하다는 내부 반성이 있었고, 피지컬 AI ETF는 이러한 방향 전환의 첫 번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ETF는 피지컬 AI 산업을 투자 타깃으로 삼는다.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스마트 제조시스템 등 현실 공간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직접 행동하는 AI 기술이 대상이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중심 AI가 데이터 분석과 예측에 머물렀다면,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실제 하드웨어를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단계를 뜻한다.

NH-Amundi는 미국, 중국, 유럽, 이스라엘 등 주요국 피지컬 AI 선도 기업을 고르게 편입했다. 미국 기업 비중은 66%, 중국은 21% 수준이다. 엔비디아, 테슬라, 인튜이티브서지컬 등 대표 기술주 외에 샤오미, 샤오핑, 유비테크 등 중국 하드웨어 강자도 포함됐다. 운용 전략은 솔액티브 피지컬 AI 지수(Solactive Physical AI Index)를 초과 수익하는 액티브 방식이다.

피지컬 AI는 산업 혁신을 넘어 지정학적 전략 기술로도 주목받는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은 “AI는 그간 ‘뇌’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몸과

차갑한다. 이는 특정 임원에게 책임을 한정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내부통제 이슈 발생 시 회사 임원이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강력한 집단 책임제 선언이다. 단, 내부통제 관련 임원은 업무 특성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서 평가도 내부통제 중심 평가가 이뤄진다.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통제 미흡 시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성과평가 등급 최저까지 하향이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필벌뿐 아니라 신상도 강화했다. 내부통제 관련 미들·백 오피스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

내부통제 이슈 발생시 전 임원 성과급 차감

신한투자, 집단 책임제 선언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이슈 발생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하는 등 철저한 내부통제를 평가·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작년 10월 ETF(상장지수펀드) LP(유동성공급자) 손실 사건을 겪으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위기관리·정상화 태스크포스(T

F)가 구동되면서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고 새롭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올해 1분기까지 내부통제, 조직문화, 인적혁신 등 다양한 과제를 설정하고 강력히 추진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강화를 단순한 슬로건으로 삼지 않고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내부통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기 위해 연말 성과우수 부서 및 직원을 포상하는 업적평가 대회에서도 내부통제 플래티넘 부문을 신설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금융기관에게 고객의 신뢰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다. 이번 비상경영체제에서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에 직접 연결해 실천 의지를 극대화했다”며 “보이지 않는 잠재적 리스크까지 모두 치유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NH투자증권

코스콤RA 테스트베드 누적 평균수익률 20%

퇴직연금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서비스 출시를 앞둔 NH투자증권은 코스콤로보어드바이저(RA)테스트베드(퇴직연금 알고리즘)에서 지난 21일 기준 20.28%의 누적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상위권 10개 알고리즘의 누적 평균 수익률은 29.65%에 달했다.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알고리즘은 이날 기준 모두 36개로, RA 일임업자 중 2번째로 많다.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에 두고 여러 RA 제휴사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은 곁 높은 수익률의 비결로 꼽았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데이터엔애널리틱스와 협업 컨소시엄으로, 양사는 수익률 제고 최우선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전략개발에 나섰다.

계산식보다는 결과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값을 찾고 최적화하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변수 중심의 알고리즘 설계’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했다.

/허정윤 기자

美 무역공세에, 韓 기업들 ‘비상’ 직업교육연구원 ‘관세119’ 가동

산업부·코트라, 관세대응 박차
두 달 새 상담문의 3022건 접수
기업 10곳 중 7곳 ‘관세 집중’
관세율·부과 시기 등 혼선 커져
강경성 “대체시장 발굴도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우리 기업들의 상담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부와 발언에 우리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18일 범정부 대응책의 일환으로 통합 상담 창구 ‘관세대응 119’(1600-7119)가 설치된 이후 두 달째인 4월18일까지 3022건의 상담 문의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미주 지역 애로 상담 679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4월 초 미국 상호관세 발표, 유예 발표 시점에는 하루 200건 이상의 상담이 쇄도하기도 했다.

이 기간 상담 문의 10건 중 약 7건(68%)은 관세에 집중됐다. 이어 대체사업 및 인증·규격 문의(21%), 대체시장 바이어 발굴(7%), 현지생산 투자진출(4%) 등이었다. 관세 상담 세부내역을 보면, 관세율(81%), 원산지규정(8%), 부과시기(7%), 과세가격(4%)순으로 많았고, 기업뿐 아니라 미국 통상정책 발표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관세사들의 질문도 300건을 웃돌았다.

‘관세대응 119’는 대미 무역 경험이 30년 이상인 베테랑 전문인력과 관세사로 구성된 간단한 질문부터 심도 있



코트라는 지난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서울 염곡동 본사에서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설명회 현장 모습. /코트라

는 무역투자 상담까지 가능하다. 상담은 유무선 모두 가능하고, 코트라 홈페이지 첫 창에서 특별 배너를 클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배너를 통해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관세확인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는데, 국내 최초로 1만9000여 개에 달하는 한국산 대미 수출 모든 품목 관세율을 기업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하루 평균 방문 건수가 2000건에 이른다.

코트라는 미국 관세 대응 관련 설명회도 전국적으로 개최하며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4월18일까지 개최된 총 29회의 설명회에 기업, 유관기관, 지자체 등 3277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 정보 전파를 위해 이달 10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코트라 본사에서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도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17일 열린 설명회에는 국내외 수출기업 등 관계자 62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찾아가는 관세 대응 설명회’도 9차례 개최하는 등 지방소재 기업의 정보 수요에도 대응하고 있다.

코트라는 아울러 추경을 통해 상담체계를 고도화하고 애로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진출기업이 많은 베트남 등 현지에서도 관세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미국과 멕시코, 중국 등 글로벌 지역 전문가 281명이 대미 수출을 위한 현지 원산지 판정, HS CODE 검토 등을 통해 상담의 질을 높이는 한편, 2000여개 이상 대미 수출 애로기업을 바우처를 통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통상정책 관련 세밀한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시장과 바이어 발굴, 생산 거점 이전과 신시장 개척까지 종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사업 신설

산업인력공단, 훈련기관 20개소 선정
“직무교육 OTT 구독서비스 만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훈련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운영할 훈련기관 20개소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사업은 근로자가 원격훈련 수강 플랫폼(아카이브)을 통해 고품질의 다양한 훈련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수 있는 구독형 훈련 제도다.

근로자는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수강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 선택 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할 필요 없이, 관심있는 부분만 발췌해 수강할 수 있다.

또 최신 경향을 반영한 ▲마이크로러닝 및 숏폼 형태 콘텐츠 ▲근로자 개

별 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한 로드맵 ▲맞춤형 콘텐츠 추천하는 큐레이션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기존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의 강점인 묶음형 콘텐츠 제공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양방향(기업↔훈련기관) 아카이브 구성 ▲근로자-훈련기관의 콘텐츠 품질 관리 ▲웹이나, 명사 특강 등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교육과정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에 관심있는 기업은 ‘멀티캠퍼스 원격평생교육원’ 등 20개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확인 후, 원하는 콘텐츠가 많은 훈련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수강할 경우 1인당 14만원 상당의 훈련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기업 단독으로 유사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보다 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폴리텍, 디지털 교육혁신 전진기지 구축

직업교육연구원 서울로 이전
“직업교육 연구기능 확대”

한국폴리텍대학은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이철수 이사장을 비롯해 임춘건 기획이사, 신동재 운영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교육연구원 이전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번 확대 이전을 통해 폴리텍대학은 직업교육 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디지털 산업 구조에 맞는 교육매체를 개발하고, 미래 교육혁신 방안을 모색해 공공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넓혀갈 예정이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직업교육연구원은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혁신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며 “직업교육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전경.

심헌 직업교육연구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사회 변화 등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폴리텍대학만이 할 수 있는 연구 및 개발을 통해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비전을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부발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2020년 이후 5년연속 쾌거
134개 공공기관 중 유일

한국중부발전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22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2020년 최우수 등급 도입 이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평가 대상인 134개 공공기관 중 10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곳은 중부발전이 유일하다.

중부발전은 특히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협력 중소기업의 발전기자재 혁신제품 수출을 위해 민·관·공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해외실증을 추진하며 총 5억 7000만원 규모 수출 성과를 거뒀다.

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발굴한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현장 중심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 결과, 지난해 협력 중소기업

들의 2370만달러 수출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10년 연속 동반성장 평가 최고 등급 달성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중부발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과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트럼프발 불확실성 커, 조속 타결 목표”

산업부, 한-태국 EPA 5차 협상 개시
상품 등 13개 분야 시장개방 중점 논의

한국과 태국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제5차 공식협상이 시작됐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세안 지역의 유망 시장인 태국과의 이번 협상을 조속 타결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태국 EPA 공식협상에는 우리측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태국측 초티마이음사와스디콜 상무부 무역협상국장을 수석 대표로 양국 협상단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2일~25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된다. 양국은 지난 2023년 3월 EPA 협상 개시 선언 이래 4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양국이 공동으로 체결한 한-아세안 및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양자 EP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집중해왔다. /세종=한용수 기자

“커피캡슐 리사이클에 전국 우체국망 활용”

환경부-네스프레소 업무협약

전국 우체국망을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에 점유율 1위 업체가 참여한다. 이에 따라 커피캡슐 회수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네스프레소 한국지사와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 사업 업무협약’을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다음 달 9일부터 세계적 커피 브랜드인 네스프레소의 커피캡슐도 우체국망을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네스프레소는 국내 커피캡슐 판매시장 1위에 올라 있다.

앞서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알루미늄 커피캡슐에 대한 새로운 회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동서식품과 협약을 맺고 이 회사의 커피캡슐(카

누 바리스타) 수거를 진행한 바 있다.

소비자는 사용한 커피캡슐을 우편회수봉투에 담아 전국 3300여 개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체국 창구 외에도 우정사업본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एको 우체통’을 통해서도 회수 서비스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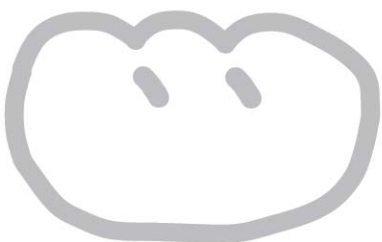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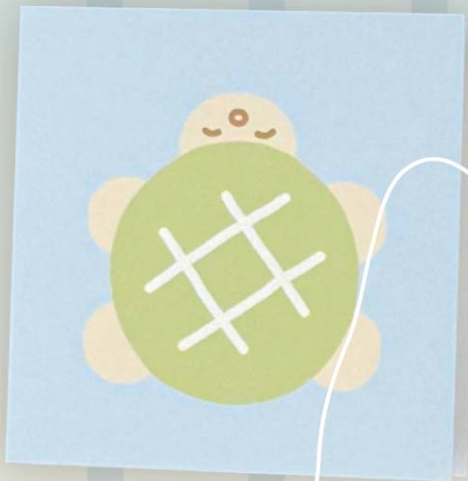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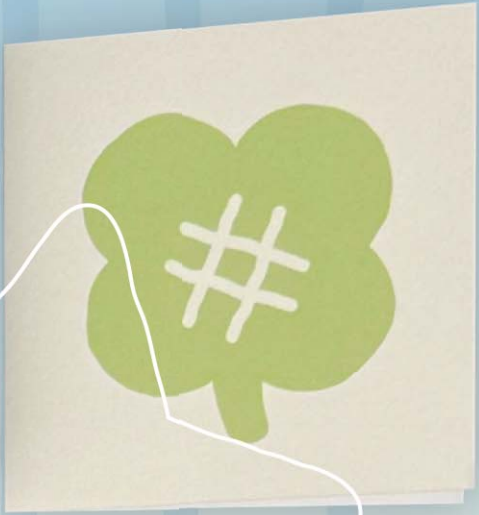
우체국은 소비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커피캡슐 우편물을 네스프레소의 재활용센터로 배달하게 된다. 재활용센터는 커피 박(뚜껑)과 알루미늄을 자동 분리하는 등 재활용 공정에 따라 처리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일회용 폐자원도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이라는 국민 인식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회수·재활용 등에 대한 순환이용률과 배출편의성 등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평가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FOLDED

SET

CARD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부산시, ‘스마트시티 분산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만든다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공모 선정
연말까지 사업비 19억 투입 계획
박형준 시장 “에너지 신산업 확대”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미래 지역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시가 에너지 기업인 포드림, 배터플라이와 연합체를 구성해 응모한 ‘스마트 시티 특화형 분산 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 시티 특화형 분산 에너지 통합관리플랫폼 구축사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산에너지활성화 기반 조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분산 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해 ▲분산 에너지 통합 모니터링 ▲전력 거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예측 시스템 ▲저장전기 판매 시스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청 전경. (원형사진) 박형준 부산시장

또 ‘분산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분산에너지원 데이터 수집 장치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강서구 일원의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대비해 ▲고부가 첨단산업 전환 ▲관련 산업 유치

등을 통해서도 ‘첨단산업 거점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분산에너지 통합 관리 ▲다양한 분산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판매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이 담겨있어, 관련 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 기반 시설 확보로 에코텔

타시티와 주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잉여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시 지역 간 거래함으로써, 앞으로 전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저장장치는 분산 에너지 등을 배터리에 저장한 뒤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를 활용하면 전력 최고조 시간대 부하를 분산할 수 있어 전력 계통의 부담이 완화된 지역 에너지 사용도 최적화가 가능하다.

시는 이런 친환경 신산업 활성화 기반들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우리 시는 이번 사업뿐 아니라, 부산형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등 에너지 신산업을 확대해 나가 도시의 산업 경쟁력 증대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으로 부산이 클린에너지 도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진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

울진군은 대표 홈페이지의 메인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오는 22일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개편은 군 대표 홈페이지의 메인 디자인과 전반적인 웹스타일을 개선한 것으로, 기존 정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더욱 역동적이고 생생한 군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새롭게 적용된 메인페이지에는 동영상을 도입해 울진군의 주요 정책, 행사 등을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칠곡군

‘청림·자체감사활동’ 최우수상

칠곡군이 경상북도가 발표한 ‘2024년 시·군 청림 및 자체감사활동평가’에서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와 자체감사활동 실적 등을 종합해 경북도가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 것이다.

칠곡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관장 주도로 청렴추진단 구성,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운영, 청렴명함·안패관 제작, 찾아가는 반부패 청렴 컨설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칠곡(경북)=김준한 기자

울산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

10억 투입... 1.4만그루 식재 예정

울산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2025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유해 물질이 도심 생활권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하는 도시숲을 말한다.

울산시는 지난 2022년부터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2년에는 중산1·2차 일반산업단지 내에 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면적 1.0ha에 1만8244그루의 수목을 심었다. 또 2023년에는 매곡2·3차 일반산업단지 내에 5억원의 사업비로 면적 0.5ha에 편백 등 35종 1만7339그루의 수목을 식재했다.

지난해에는 모동화일반산업단지



울산 모동화일반산업단지 내 도시숲

내(북구 효문동 1013 일원)에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면적 1.1ha에 이팝나무 등 12종 1만384그루의 수목을 심었다.

올해는 국·시비 등 10억원을 투입해 신일반산업단지 내(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946번지 일원) 경관녹지 부지에 1.0ha 규모로 도시숲을 조성한다.

식재되는 주요 수종은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모감주나무, 이팝나무, 가시나무 등 22종, 1만3907그루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완도군, 귀농·귀어·귀촌인 정착 지원

올해 13개 사업 추진 계획

완도군은 귀농, 귀어,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도시민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귀농인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귀농인 정착 및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5세대, 세대 당 500만 원) ▲어울림 마을 3개소 운영 ▲동네 작가 운영 ▲귀농, 귀어, 귀촌 모임체 육성 등이 있다.

귀어인을 위해서는 ▲청년 어촌 정착 지원(20명, 연차별 차등 지원) ▲귀어가 정착 지원(10가구, 세대 당 5백만 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전남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전남에서 살아보기’(2개소)는 귀농·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3개월간 완도에서 생활할 기회를 제공한다.

‘전남형 만 원 세컨 하우스’(2개소)는 활용 가능한 빈집을 정비하여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거주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귀농산어촌 박람회 참가(4회) ▲찾아가는 귀농어귀촌 설명회(5회) ▲귀농귀어 교육(2회) 등을 통해 예비 귀농, 귀어, 귀촌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2025. 4. 21.(월) 14:00 포항시청 중회의실



포항시는 21일 GS건설, HD현대인프라코어, 아모지(AMOGY)와 함께 ‘포항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항시, ‘탄소중립’ 도시전환 속도

GS건설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협약

포항시는 21일 GS건설, HD현대인프라코어, 아모지(AMOGY)와 함께 ‘포항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길 포항시 부시장을 비롯해 이정환 GS건설 신사업추진부장, 서상연 GS건설 투자사업부장, 임형택 HD현대인프라코어 엔진본부 영업부장, 우성훈 아모지(AMOGY)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무탄소 에너지 공급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청정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 기술

개발과 실증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분야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정암모니아 크래킹을 통한 수소엔진발전 기술을 활용한 무탄소 전력이 지역 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포항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포항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해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도 이끌어갈 계획이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

달성군, 교육발전특구사업 본격 추진

7개 사업에 31억9000만원 투입

달성군은 공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도 달성군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총 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며, 특별교부금 15억 9000만 원과 군비를 포함해 총 31억 9000만 원 규모

로 진행된다. 이는 대구시 기초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 교육에 대한 달성군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핵심 사업으로는 지역대학인 DGI 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와 연계한 과학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관내 우수 학생들에게 DGIST의 연구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전국 수준의 과학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김준한 기자 kih9@

부동산 정리 등 사업재편… KT&G, 해외확장·전자담배 집중



KT&G가 본업인 담배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부동산 등 비주력 자산 매각을 본격화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동시에, 해외 궤련 수출 확대와 전자담배 플랫폼 고도화로 글로벌 담배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것. 본업 회귀 전략이 구체화되며 회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KT&G는 최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 매각을 위해 입찰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

이 호텔은 KT&G가 지분 100%를 보유한 상상스테이가 운영하고 있으며, 4성급 규모다. 이에 앞서 KT&G는 경기도 성남시의 'KT&G분당타워'를 매각했으며, 서울 중구의 'KT&G을지로타워'도 이달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KT&G 측에 따르면, 부동산 및 금

을지로타워 등 3개 부동산 매각 확보 재원, 주주환원·성장 투자 국내·카자흐·인니 공장에 투입

올해 관련 매출 추정치 22% ↑ 국내 전자담배 지배력도 공고화

용자산의 구조개편을 추진해 확보한 재원은 주주 환원과 성장 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다.

전자담배 사업에서는 국내 생산기지를 확장하고 현재 착공 중인 카자흐스탄 공장에 투자한다. 완공 이후에도 생산 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이어 간다. 해외 궤련사업에서는 주요 생산기지인 인도네시아와 해외 법인 생산체계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KT&G의 해외 궤련 수출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월 담배 수출 잠정치는 62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향 수출은 2350만 달러로 270% 급증하며

수출 지역 다변화의 성과를 입증했다. 지난해 KT&G는 해외 궤련 사업에서 연간 판매량 10.3% 증가, 매출 28% 성장(1조4501억원), 영업이익 84.2% 증가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해외 사업은 중동·CIS 중심의 기존 주력 시장을 기반으로 아태·아프리카·중남미로의 수출 확장 전략이 병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현지 법인을 통한 직접 사업을 펼치고 있다. 수출 사업은 본사 전담 체제로 운영되며, 판매·재고·채권 등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수익성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해외 궤련 매출 추정치를 전년 대비 22% 증가한 1조76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는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늘리기에 속도를 낸다. KT&G는 지난해 국내 전자담배 시장에서 점유율 46%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선두를 지켰다.

KT&G는 2017년부터 '틸 솔리드', '틸 하이브리드', '틸 에이블'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출시하며 멀티 플랫폼 전

락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2022년 출시한 '틸 에이블'은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사용자 맞춤형 경험을 제공했다. 하나의 디바이스로 3가지 종류의 전용 스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는 KT&G가 기술 기반 경쟁력과 빠른 시장 대응력을 바탕으로 전자담배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비주력 사업의 정리와 담배 본업 집중 전략은 KT&G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내 담배시장 정세 우려 속에서 수출 확대와 신제품 다변화, 그리고 자산 효율화 전략이 맞물리며, KT&G의 향후 행보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G 측은 "향후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구조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며, 마련된 재원은 주주 환원과 성장 투자에 활용하는 등 자본 효율성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백화점 LTM 팝업(Pop-up) 전경

롯데백화점 명동일대 '아트' 물들여 '롯데타운 아트 페스타'

롯데백화점이 '롯데타운 명동 아트 페스타(LTM ART FESTA)'로 롯데타운 명동 일대를 아트로 물들인다.

롯데타운 명동이 위치한 소공동은 역사적으로 쇼핑의 중심지이자 예술적 콘텐츠까지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해왔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LTM ART FESTA'를 통해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롯데타운 명동의 헤리티지를 재조명하고, 롯데타운에 대한 브랜딩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2030 고객들에게 명동 상권의 매력을 알리고 더 많은 MZ고객들이 'LTM ART FESTA'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시작 전 MZ세대들의 수요 소비 거점인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LTM 팝업'은 오는 25~27일 서울 성수동 연무장길에 위치한 'MM성수'에서 진행된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LTM 팝업을 통해 차별화된 체험형 콘텐츠로 고객 참여를 유도하고 MZ세대들에게 롯데타운 명동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오뚜기-에이치텍스 '3분' IP활용 의류 출시 반팔티·볼캡 등 총 6종

오뚜기는 자사 대표 브랜드 '3분' IP를 활용하여 국내 대표 스포츠 브랜드 'HDEX(에이치텍스)'와 협업 의류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뚜기 3분xHDEX 트레이닝 포스터. /오뚜기

이번 협업은 '맛있어지는 3분, 건강해지는 3분'이라는 메시지를 기반으로 오뚜기 '3분' 브랜드와 키 컬러를 활용한 반팔티 1종, 슬리브리스 2종, 볼캡 1종, 반바지 2종 등 총 6종의 집웨어를 선보인다.

협업 제품은 무신사 기획전을 통해 단독 공개되며 구매자들에게는 해당 의류를 밀키트 형태로 포장, 운동 가이드 엽서와 함께 배송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빽스 '가정의 달' 외식지원 일행 모두에 '1인당 1만원'

'슈퍼 빽스 세이프 패밀리' 캠페인 스테이크 최대 50% 할인 프로모션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빽스가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Super VIPS Save Family (슈퍼 빽스 세이프 패밀리)'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모님과 아이 모두 함께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외식 공간으로서 빽스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선보인 'Better Taste, SUPER TABLE' 필름에서는 봄 시즌 인기 메뉴를 위트있게 그려내 소비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건강을 챙기는 아빠에게는 '바질 뽕뽕 샐러드', 근육 키우기에 집중하는 아들에게는 '시금치 로스티드 치킨', 그리고 손녀에게는 '차지키 그릭 샐러드'를 각각 매칭해 가족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외식 공간으로서 빽스의 매력

을 자연스럽게 담아냈다.

또한 온 가족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만원 할인 혜택의 '외식비 지원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6월 18일까지 매장 방문하여 결제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쿠폰 이미지 혹은 캠퍼본을 제시할 경우 성인 1만원(청소년 5000원) 할인 혜택을 테이블 일행 모두에게 제공한다.

내달 19일까지 소중한 사람들과의 특별한 순간을 완성해줄 스테이크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방문 인원수에 따라 3명이 모이면 30% 할인되며, 최대 5명까지 50% 할인 받을 수 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빽스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즐거운 외식 경험을 제안하고자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채로운 메뉴와 서비스를 선보이며 국내 대표 외식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컬리, 신선식품 엄선 '더퍼플셀렉션' 론칭

6개 카테고리, 300여개 상품 구성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는 신선식품 프리미엄관 '더퍼플셀렉션'을 론칭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퍼플셀렉션은 엄선한 상품만 취급하는 컬리가 신선함과 지속가능한 가치, 경험의 확장 등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선별한 프리미엄관이다.

컬리의 기존 기준을 뛰어넘는 상품들로 정육과 수산, 과일, 채소, 쌀, 건과 등 6개 카테고리, 300여개 상품으

로 구성했다.

정육은 컬리 자체 브랜드 'PPUL' 처럼 한우 1++ 중에서도 마블링 지수가 8~9 등급인 상품을 준비했다. 보통 마블링 지수가 8등급 이상인 상품은 고급 다이닝 레스토랑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수산은 제철 어종별 산지와 항구를 물색해 당일 입항한 원물 중 가장 좋은 상품만을 엄선했다. 두 카테고리 상품들은 지속가능한 가치 실현을 위해 동물복지와 친환경 어업 여부 등도 함께 고려했다.

/신원선 기자



베트남 현지 고객들이 하노이에 오픈한 GS25를 이용하고 있다.

베트남GS25, 하루 평균매출 500만원 기록

하노이에 6개 매장… PB상품 인기

하노이에 진출한 베트남GS25가 역대 최고 수준의 성적표를 받았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베트남 하노이에 문을 연 베트남 GS25 매장의 하루 평균 매출이 500만 원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베트남GS25는 지난 3월14일, 하노이에 6개 매장을 동시에 오픈했다.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남부 지역의 1위 편의점 브랜드로 올라선 후 하노이를 고두보 삼아 본격적인 베트남 북부 진출에 나선 것.

6개 매장의 경우 하루 평균 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오픈 초기에는 하루 최고 매출 1000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한국 편의점의 하루 평균 매출과 비교할 시 무려 2.5배 높은 매출 규모다.

6개 매장에는 하루 평균 1000명씩, 누적 30만명에 달하는 고객이 방문했다. 대부분의 카테고리 매출 최대 1~3위를 GS25 자체 브랜드(PB)상품, 한국 브랜드 상품이 모두 휩쓸었다.

하노이 진출에 앞서, 현지화가 아닌 더 한국적인 레시피를 활용하는 상품 리뉴얼 전략이 이번 흥행에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NS홈쇼핑 '5억 드림 대축제' 이벤트 진행

NS홈쇼핑이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5억 드림 대축제' 이벤트를 진행한다.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행운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골드바, 황금카네이션 등 5억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한다.

'5억 드림 대축제' 행사 기간 내에 NS홈쇼핑 TV방송, T커머스 채널, 모바일과 앱에서 1회 이상 구매 하면 자동

으로 응모되며 응모자에게는 총 세번의 순금 당첨 찬스가 주어진다.

행사기간내 전체 응모객을 대상으로 5명을 추첨해 골드바 100g을 주고 5명을 추첨 총 200명에게 3.75g의 골드바를 준다.

매일 NS홈쇼핑 모바일에서 구매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매일 1명 총 40명에게 24K 황금카네이션 뱃지를 준다.

/신원선 기자

일상 위협하는 환절기 “면역력 관리하세요”

봄철 환절기는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2025년도 4분의 1이 지나 가며 시간과 계절은 완연한 봄을 맞이했지만, 아침저녁의 큰 일교차와 급변하는 날씨는 계절성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따뜻한 봄 햇살 속에 숨어 있는 황사, 꽃가루, 미세먼지는 물론, 실내의 건조한 공기까지 더해지면서 눈, 코, 입 등 호흡기 건강이 위협받는다. 감기, 알레르기, 피부 트러블 등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도 쉽다. 또 몸의 피로는 면역력과 일상생활 속 활력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시기에는 규칙적인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 무리하지 않는 운동, 스트레칭 등을 통해 신체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당분과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생활 습관도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국내 제약 업계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한다. 활기찬 봄이 시작하는 이때 지친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들을 살펴본다.

/이세경·이청하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하루 한 알로 침향 등 18가지 약재 섭취

종근당 ‘침향한 프리미엄 60환’

합성첨가물 제로… 원기회복 도움

종근당이 건강 관리가 필요한 노년층, 체력 관리가 필요한 수험생의 원기회복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침향한 프리미엄 60환’을 선보인다.

종근당 침향한 프리미엄 60환은 하루 한 알로 18가지 약재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보

양식품이다. 주원료인 침향 22%, 녹용 10%, 마카 등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했다.

침향은 침향나무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생산하는 진액이 수집, 수백 년에 걸쳐 굳어진 약재로 기력을 보충하고 활력을 증진하며 심신의 안정 등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또 설탕, 합성향료, 색소 등 합성첨가물을 넣지 않았으며 100% 국내산 아카시아 벌꿀을 사용해 한약재의 쓴맛을 싫어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다.

마그네슘·활성비타민 함유… 피로회복 도움

동국제약 ‘센스온액티브업’

비타민B2·B6 등 8가지 성분 최적함량 배합

동국제약의 ‘진센시드캡슐’은 임상연구로 입증된 표준화된 인삼 성분만 100% 함유한 국내 유일의 인삼 단일성분 일반의약품이다.

인삼 40% 에탄올건조엑스(생규) 100mg를 성단일분으로 하며, 진센시드캡슐에 함유된 인삼건조엑스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NK세포 등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항체 생성을 증가시키고, 감기, 인플루엔자(독감) 등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어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포닌 함량이 높아 생리활성효과가 우수한 6년근 인삼을 사용해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허약한 체질, 병중이나 병후 회복을 위한 자양강장에 더욱 효과적이며, 캡슐 형태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



‘센스온액티브업’은 마그네슘과 활성비타민을 함유한 프리미엄 영양제로, 근육 이완과 육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센스온액티브업은 마그네슘 1일 권장 섭취량인 350mg 이상을 함유하였으며, 생체 이용률을 높은 활성비타민 B1(벤토포아민)을 1일 최적섭취량 수준인 138mg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비타민B2, B6, B12 및 비타민E 등 총 8가지 성분이 최적함량으로 배합되어 있어 근육경련 개선부터 육체피로 회복, 에너지 생성까지 3가지 복합작용이 가능하다.

“비오틴·칼슘 등 미량영양소 채우세요”

동아제약 ‘오쏘몰’

‘바이탈 m·f’ 구성… 오메가-3 함유

동아제약은 직장인들이 하루 한 병 섭취로 간편하게 종합적인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고급 비타민 ‘오쏘몰’을 소개한다.

‘오쏘몰’은 정확한 양의 미량영양소를 알맞은 제형으로 보충함으로써 잠든 세포 하나하나의 기능을 깨워주는 기능을 갖췄다.

오쏘몰 바이탈 m은 남성 건강을 위한 비오틴,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한 아연, 단백질 이용에 중요한 비타민 B6를 강화한 제품이다.

여성용 바이탈 f에는 뼈와 치아 형성 및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칼슘, 혈액 생성에 필요한 철을 더했다. 두 제품 모두 오메가-3(EPA 및 DHA 함유유지)를 함께 담은 것도 특징이다.

햇빛을 보지 않고 일하기 바쁜 현대인들은



피로감, 무기력증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 특히 봄에는 춘곤증까지 불청객으로 찾아온다. 동아제약은 이러한 나른함과 집중력 저하를 일시적인 환경 부적응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두통이나 식욕부진, 소화불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동아제약은 오쏘몰이 미량영양소 특성에 따라 흡수율 높은 최적의 제형을 제공해 현대인을 위한 멀티비타민으로 적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로 여성을 건강하게

유한양행 ‘엘레나’

퀵·스틱·테아닌 등 맞춤형 제품 확장

유한양행은 프리미엄 여성 유산균 브랜드 ‘엘레나’를 제안한다. 엘레나는 여성의 질과 장 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를 주원료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성분은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개별인증형 원료다.

유한양행은 엘레나를 시작으로 유산균 증식과 면역 건강을 고려한 ‘엘레나 퀵’, 아이부터 어른까지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엘레나 스틱’, 여성 건강과 함께 정서적 긴장 완화 및 숙면을

돕는 ‘엘레나 테아닌’ 등을 지속 선보이며 여성 건강 주기에 맞춘 맞춤형 제품을 확장하고 있다.

유한양행이 지난 2015년 출시한 엘레나는 ‘여성의 건강한 아름다움’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국내 대표 프리미엄 여성 유산균 브랜드로 성장해 왔다. 장 건강 중심이었던 국내 유산균 시장에서 유한양행은 ‘여성 유산균’, ‘질 건강 유산균’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제품으로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 효과를 주는 테아닌 성분을 더

한 ‘엘레나 테아닌’을 출시해 현대 여성들의 질 건강, 장 건강, 그리고 마음 건강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조하고 불편한 눈에 간편 수분 충전

광동제약 ‘아이톡점안액’

트레할로스 주성분 함유… 보습력 뛰어나

광동제약의 일회용 인공눈물 ‘아이톡점안액’은 선인장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트레할로스’를 주성분으로 함유해 보습력이 뛰어나다. 공해, 먼지, 건조한 열, 항공여행 및 장시간 컴퓨터 사용 등에 노출된 눈의 불쾌감·찌르는 듯한 통증·피로 등의 완화에 효능이 있다.

봄철에는 꽃가루와 건조한 대기까지 더해 눈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특히 안구건조증 등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은 증상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아이톡점안액은 무방부제 일회용 제품으로 히알루론산이 첨가되어 있다. 콘택트렌즈 착용 시에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눈의 윤활막 형성을 더욱 원활하게 해 사용감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또 2015년 30관으로 첫 출시한 후 2022년 60관을 새롭게 선보였다. 1관당 용량도 기존 0.8mL서 0.5mL로 줄였다.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품 개선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최근 꽃가루와 각종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약국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아이톡점안액은 봄철 느껴지는 눈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말했다.



롯데단길 in 진해 중앙시장

쥬포튀김

은혜분식

감칠맛이 폭발한다!
겉은 바삭, 속은 쫄깃!

쥬포 튀김



LOTTERIA × 동반성장위원회 지역사회와 함께합니다.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원료 특성 상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캐러멜화 반응으로 인해 제품 표면이 부분적으로 색상이 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유니세프 한국총, 지구촌 어린이 지원

대한항공이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지구촌 어린이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온라인 기부 프로그램 ‘플라이트 포 베테르 투모로’ (Flight for Better Tomorrow)를 공동 시행할 계획이다.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오른쪽)과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



에몬스, 국제기능올림픽 지원 공로 인정받아

에몬스가 국제기능올림픽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22일 에몬스에 따르면 감사패는 에몬스가 지난 10년간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의 훈련과 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공로를 높이 평가해 받게 됐다. 김경수 에몬스 회장(오른쪽)이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받고 있다. /에몬스



공영홍소핑, ‘야생화 심기’ 캠페인으로 ESG 실천

공영홍소핑은 지난 21일 대전 노루벌직접자생태원에서 열린 야생화 심기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한적십자사와 맺은 ESG 상생업무협약 일환으로 2000만원을 기부한 공영홍소핑은 첫 현장 캠페인으로 야생화 심기를 택했다. 야생화 심기는 멸종 위기에 처한 토종 식물을 보전하기 위해 기획했다. 기린초, 산수국, 금강화 등 7종, 3000본 야생화는 향후 체험 가능한 정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영홍소핑



유한킴벌리-토지주택공사, 훈인 외 출생아 지원

유한킴벌리는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측은 훈인 외 출생아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다. 양사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하gis 기저귀 등 육아용품과 주거환경 개선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양숙 유한킴벌리 지속가능경영센터장(오른쪽)과 조경숙 LH 경영관리본부장이 MOU를 체결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에코프로 내달 17일 ‘에코 그린데이’

에코프로가 친환경을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림책제를 연다. 에코프로사업장 인근 하천 정화 및 꽃정원 조성 등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치며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에코프로는 오는 5월 17일 충북 청주시 오창호수공원에서 어린이 환경 축제인 ‘에코 그린데이’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에코 그린데이는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환경과 지구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기획됐다. /차현정 기자 hyeon@

정관장 “가정의 달, 소중한 분들에 건강 선물하세요”

오늘부터 내달 16일까지 ‘사랑을 축하해요’ 행사 인기제품 구매혜택 제공

정관장이 가정의 달을 맞아 23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사랑을 정(正)하세요’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관장은 베스트셀러 ‘에브리타임’, 갱년기 여성건강 솔루션 ‘화에락’, 프리미엄 기력회복 ‘천녹’을 비롯해 ‘홍삼정’, ‘홍삼탄’, ‘다보록’, ‘홍이장군’, ‘아이패스’, ‘황진단’, ‘달임액’ 등 정관장 인기제품 구매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정관장 멤버스 고객을 대상으로 2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 포인트를, 40만원 이상 구매 시 2만 포인트를 추가 적립하는 혜택도 마련했다. 특



사랑의 축하해요 행사 포스터./KGC인삼공사

히 로드샵에서는 삼성카드 Link 혜택을 연결해 25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을, 5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원

을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멤버스에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는 가입 즉시 5000 포인트를 제공한다.

정관장은 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5월 6일)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발빠르게 가정의 달 선물을 준비하려는 고객을 위해 초기 구매 혜택도 강화했다.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행사 초기 5일 간, 정관장 제품을 30만원 이상 구매하면 멤버스 포인트를 더블로 적립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관장은 우리가족 리즈시절 소환 ‘正(정)情(정)한 그대, 그때 정말 좋았네’ 본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리가족이 가장 빛나던 ‘리즈시절’ 사진을 사연과 함께 응모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0명에게는 오래된 사진을 AI 영상으로 복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베스트 사진으로 뽑힌 분께는 안마의자, 여행상품권, 디너식사권 등 특별한 경품을 제공한다. 정관장 공식 인스타그램과 정관장 공식 온라인몰 ‘정몰’, ‘정관장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참여할 수 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중한 분들에게 바른(正) 가치를 추구하는 정관장을 통해 건강을 선물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정관장은 품격있는 선물부터 연령·성별·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기능성 제품까지 다양한 구매 혜택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신원진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시몬스, 소아청소년 환아에 3억 기부 ‘한화 태양의 숲’으로 생태계 붕괴 극복

누적 기부금 18억 달성

시몬스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환아들을 위해 3억원의 치료비를 쾌척, 누적 기부금 18억원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몬스 침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의료 체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을 당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소아암 및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투병 환아들을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3억원의 치료비를 전달했다.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선행을 계속하고 있다. 시몬스의 후원을 통해 현재까지 150여 명의 환아가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

특히 지난 2023년부터는 국내 기업 가운데 최초로 삼성서울병원 소

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을 시작하며 기부 문화 저변 확대에 나섰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중증 질환을 겪는 환자 본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통증 조절을 통한 환자의 삶의 질 개선 ▲환아 및 가족의 심리·사회적 지원 ▲환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 지원 ▲임종 및 사별 가족 돌봄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투병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어려움을 돕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지난해부터는 재택의료 파트, 단기입원 파트, 병원학교, 재활치료 등을 아우르는 소아청소년 통합케어센터 출범을 지원하고 있다. 이 센터는 병원에서는 완화의료팀이, 가정에서는 재택의료팀이 투 트랙으로 환아들의 진료와 치료를 도우며 환아 및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봐준다. /김승호 기자 bada@

한화그룹, ‘다시 푸른숲:울진’ 행사

한화그룹이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과 생태계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 12번째 ‘한화 태양의 숲’ 조성에 나섰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북 울진 지역에 조성된 ‘한화 태양의 숲’은 단순히 탄소 상쇄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로 인해 무너지는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 명칭은 ‘다시 푸른 숲:울진’으로 자생력을 회복하고 동식물의 서식지가 복원되는 선순환의 의미를 담았다.

이번 ‘다시 푸른 숲:울진’ 식수 행사는 지구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경상북도 울진군 나곡리에서 진행됐다. 손병복 울진군수를 비롯한 울진



12회 한화 태양의 숲 조성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묘목을 심고있다. /한화

군청 관계자, 사회적기업 트리플래닛, 대학생 등이 참여해 3만㎡ 규모의 산불 피해 지역에 총 8500그루의 묘목들이 심어졌다.

‘다시 푸른 숲:울진’ 행사에서 식재된 나무들은 산불에 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쉬나무, 피나무 등이다. 이 묘목들이 자라하면 연간 약 9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인하대, 해양 블루테크 미래리더 양성

해수부 신규과제 주관기관 선정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5년도 해양 블루테크 미래리더 양성 프로젝트’ 신규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해양 블루테크 미래리더 양성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과 학기술진흥원(KIMST)을 통해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 인력양성 사업이다.

미래 해양수산 신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친환경 첨단선박, 블루 푸드·바이오, 해양레저관광, 해양공간·자원 등 4대 분야에 걸쳐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게 목표다.

인하대는 해양공간·자원 분야의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면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정부로부터 총 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이 연계된 기술·해양에너지(해상풍력) 기술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중심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i@

인사

◆광주일보 ◇임원 승진인사 △전무이사(경영지원담당) 강명렬 △전무이사(기획관리담당) 유임현 △이사·편집국장 최권일
◆KBS △교양다큐센터 교양다큐2국 CP 배용화

부음

▲엄하영씨 별세, 엄주화·엄주웅(뉴스토신진홍희이사)·엄주탁·엄주성(키움증권대표이사)씨 부친상, 우종완씨 장인상 = 21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장지 서울현충원 02-3779-2181

PURSOL

숲의 청정한 공기, 자연을 닮은 환기



'숲속 집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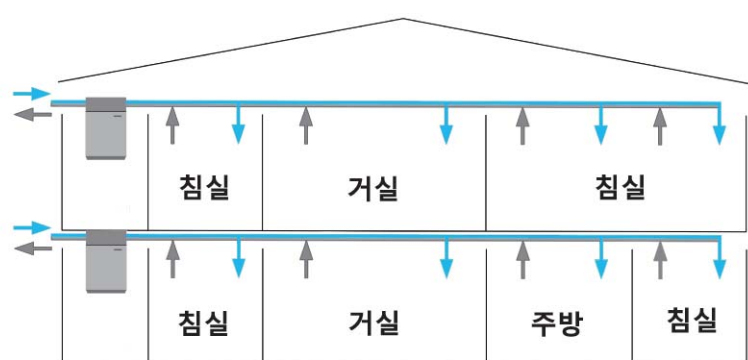
창문을 열지 않아도
미세먼지, 황사 걱정없이
숲속 공기가 집안에 들어온 듯,

환기, 이제는
더 쉽고 편안하게



좌우 도어 방식으로 간편한 필터 교체순서

[신개념] 키친 수납함 스타일로 제작된 도어형 열회수 환기청정기



→ 깨끗한 실외공기 + 산소 공급
← 오염된 실내공기 + 이산화탄소 배출

아파트, 주택, 사무실, 카페, 독서실 등
다양한 공간에 최적화된 환기 시스템

[특장점]

●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공구 없이 도어를 간편하게 열어 필터 상태를
직접 자주 확인할 수 있음.

● 1분 셀프 필터 교체!

복잡한 절차 없이 쉽고 안전하게,
목 디스크 걱정 없는 편리한 교체 가능.

● 사계절 내내 에너지 절감!

냉방과 난방 효율을 높이는 최고급 전열교환소자가
내장되어 뛰어난 열교환 성능을 자랑.

● 공기 정화는 기본, 탈취까지 완벽하게!

H13 등급의 항바이러스 헤파 필터와 탈취 기능까지
갖춘 대용량 복합 항바이러스 헤파 필터로
미세먼지, 황사 걱정 없이 쾌적한 환기를 제공.

● A/S 없이도 OK!

필터 교체부터 유지관리까지 스스로 해결!

www.pursol.co.kr

푸르솔 010. 8899. 8651

역사적 전환점이 된 작품



홍 경 안 역
시시일각

‘공공미술(Public Art)’은 ‘공공의 장소에 놓이는 미술’을 의미한다. 도심 빌딩 앞, 공원, 광장 등 일상 속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조각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작품들은 도시미관 개선과 미술향유를 목적으로 설치되지만, 정작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 작가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의 ‘기울어진 호’(Tilted Arc)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공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문제적 작품이다. 공공미술이란 단순한 장식이 아닌, 공공공간의 본질과 기능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던 작가의 신념을 드러낸 도전의 결과물이자, 미술사적으론 예술과 시민, 공간의 관계를 재구성한 선구적 사례로 꼽힌다.

1981년 뉴욕 맨해튼의 폴리 연방 플라자(Foley Federal Plaza)에 설치된 이 작품은 거대한 강철판(Corten steel) 하나로 구성되었다. 길이 36.5미터, 높이 3.6미터

에 이르는 규모는 언뜻 거대한 철판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시각적 문법으로 시민과 공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세라의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

실제로 이 조각은 사람들의 이동 방식, 공간 인식, 심리에 영향을 주도록 고안했으며, 이와 같은 설정은 플라자의 동선을 재편하며, 시민들이 일상적인 공간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시민들은 철판을 우회하며 공간과의 긴장감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그 과정은 곧 시각적 감상을 넘어 신체적 경험을 통한 예술을 음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의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사실 특정 장소를 위해 제작된 장소특정적(site-specific) 작품이었던 ‘기울어진 호’는 설치 직후부터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인근 법원 관계자들과 사무직 종사자들은 위압감을 준다며 불편해 했으며 일부 시민들은 통행을 방해하는데다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장소 이동을 요구했다. 심지어 1985년엔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작품 존치를 둘러싼 청문회까지 열리게 되었다.

세라는 철거 여론을 단호히 거부했다. 예술은 단지 대중을 만족시키기 위한 장식물

이 아니라, 때론 불편함을 통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기울어진 호’는 기어이 해체되어 창고로 옮겨졌다. 이를 두고 세라는 ‘예술에 대한 폭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여러 강연과 글을 통해 공공미술의 본질과 예술가의 권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기울어진 호’가 인정받게 된 것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였다. 뒤늦게나마 공공미술의 존재 방식과 시민 참여, 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담론 유발이라는 미술계의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고 시민들 역시 미술이란 눈에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경험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임을 서서히 이해하게 되었다.

‘기울어진 호’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하지만 당시 길을 가로막는 골칫거리로 인식되던 이 작품이 남긴 의의는 작지 않다. 예술이 지닌 힘, 즉 사고를 자극하고 경험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술이라는 메시지를 영원히 남겼고, 예술과 권력 간의 긴장 관계를 비롯해 공공미술이 누구를 위한 예술인지, 작가의 권리와 공공의 권리 중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한 화두를 생산하는 등, 공공미술의 역사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미술평론가

정권변화에 긴장하는 여의도



김 지 수 섭
신 하 은
(자본시장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의도 증권가에는 긴장감이 되살아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 일정이 공식화되면서,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증권 유관기관 수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고경영자(CEO)들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일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정보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임기 만료까지 약 2년이 남았지만,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더해지며 입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권 교체기에도 거래소 이사장이 중도 사임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 이사장은 문제인 정부

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뒤 윤석열 정부에서 거래소 수장으로 발탁됐기 때문에 특정 정치세력에 편종된 인사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여야 모두 자본시장 부흥을 주요 정책으로 강조하면서 거래소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목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대표적 친윤 인사다. 정치권 출신이라는 이력과 함께 보는 인사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역시 윤 캠프의 경제 싱크탱크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당시 싱크탱크를 주도했던 만큼, 이 사장 또한 보는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두 수장 모두 임기는 남아 있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도 사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복헌 금융감독원장은 임기가 오는 6월에 종료된다. 이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인물로, 정권 교체 시 인사 변동 가능성이 큰 주요 대상으로 꼽히지만 대선 시기와 임기 만료 시기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정권 교체가 거론될 때마다 유관기관장 교체와 짝을 정치색 관련 인사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의 안정성 훼손과 불안정한 실행력은 금융생태계의 신뢰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인사 이슈를 넘어, 자본시장 전반의 추진력 약화로 직결된다.

결국 여의도 금융권은 다시 한번 정권 교체기의 정중동(靜中動) 국면에 놓였다.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누군가는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또 누군가는 조용히 물러나야 할지에 여의도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godh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23일 (음 3월 2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노력에 따라 발전을 가져온다. 48년생 도박에 돈과 노력을 쏟는 건 무모하다. 60년생 운이 있으니 주식보다는 청약을. 72년생 주변에서 권하는 것들이 이롭지만 있고 실상은 없는 것. 84년생 슬럼프 고통도 자기 성장이다.



37년생 사촌과의 경쟁은 후회만 남게 되니 양보를 하자. 49년생 주변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61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성취된다. 73년생 늘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85년생 막연한 희망보다는 작더라도 실천을 해야.



38년생 계몽에 피우지 말고 일해야. 50년생 신세진 사람이 빚 갚으러 온다. 62년생 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미뤄둔 일을 처리. 74년생 도무지 근거 없는 말들로 무성하다. 86년생 바쁘다고 서두르면 결과 없이 진행만 더디게 된다.



39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감사. 51년생 사랑 타령은 시간 낭비며 우울의 결과로. 63년생 신용으로 신뢰를 얻는 날. 75년생 뜻이 있으면 결국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87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40년생 오후에 교통사고 유의. 52년생 아직계획은 보류해야. 64년생 경력을 믿고 교만해야 부처님 손바닥처럼 얇은 수준이다. 76년생 세월이 지나고 보니 부모님 은혜가 태산같이 높다. 88년생 집 안 청소로 주변 환기를 해보자.



41년생 바쁜 시간은 피해서 일을 보라. 53년생 대인관계에서 내가 먼저 공과 사를 구별해야. 65년생 이성 문제로 시달리실. 77년생 하늘이 알아주니 남들도 알아 복을 받는다. 89년생 평소 겸손함으로 주변으로부터 신망을 얻는다.



42년생 종이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야지 절이 옮겨갈 수는 없다. 54년생 정신일도 하사 불성이면 못할 것이 없다. 66년생 산행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78년생 일이 바빠서 서두르다 다친다. 90년생 위험한 일을 미리 알아 대비하자.



43년생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다는데. 55년생 동료 간에 협조가 필요하니 왕따시켜 따돌리지 않도록. 67년생 소자본 창업은 좀 더 꼼꼼하게. 79년생 사전에 준비가 되어 뒷걱정이 없다. 91년생 잔소리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할 것.



44년생 이익을 챙기는 것이 좋으나 너무 계산하지 않도록. 56년생 태산을 넘으면 평지가 나오니 기다려라. 68년생 선버른 이직은 금세. 80년생 자연에서 바람과 맑은 달을 대하여 즐겁다. 92년생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여 돈 자랑 말라.



45년생 과다한 투자는 삼가야. 57년생 말은 바 일을 열심히 하도록. 69년생 기획실로 발령되어서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상황. 81년생 집을 설계하는데 마음이 맞아 고마운 일. 93년생 남과 비교되는 일은 사람 사는데 항상 있는 일이니.



46년생 머리가 복잡하니 매해 결정은 미루라. 58년생 배우자가 나의 조력자이니 감사. 70년생 비단옷을 입고 한밤중에 걸어 다니는 상황. 82년생 복권이 되려면 반드시 복권을 사야 하듯 일을 일단은 시작해야. 94년생 초년에 기술이든 공부부.



47년생 함찬 변화가 있으니 외모에도 조금 신경 쓰도록. 59년생 한 걸음만 가면 행운이 온다. 71년생 기술 쪽에 재능으로 영업이득 있다. 83년생 사람이 원앙지계(鴈之契). 95년생 자신이 근면하도록 해야만 없는 부모 탓을 하지 않게 된다.



김상회의四季 인드라망

인간들은 물론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는 그물코처럼 얽혀있다. 혼자 독자생존이라는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가 발생한 인도에서는 고대로부터 세상이 인드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화엄경에서도 세상을 덮고 있는 한없이 넓은 그물은 마디마디마다 구슬이 달려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구슬에서 빛이 나와 다른 구슬을 비추어 주며 각각들 전부를 비추어 볼 수 있다고 설하는데 이것이 인드라망이다. 이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타인인간과 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타불이(自他不二)를 나타내고 있다. 끝벌이 난리다. 작년과 재작년만 해도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약 100억 마리의 끝벌이 집단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여 양봉 농가에 비상이 걸렸었다. 끝벌 개체 수 감소는 양봉 농가에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다. 끝벌은 단순히 꿀을 만드는 것 외에도 과일과 견과류는 물론 온갖 채소에 수분(受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꽃 저꽃 날아다니며 수분을 못 하게 되어 과일이나 열매가 열리지 않게 되면 농작물 수확 감소는 당연하고 자연 생태계가 깨지게 된다.

그런데 이제는 바다 건너 넓은 대륙인 미국에서 최근 몇 개월간 끝벌 수억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면서 양봉 업계가 큰 위기에 빠졌다고 보도됐다. 이번처럼 끝벌이 많이 폐사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단순히 양봉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식량 안보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미국의 방송 매체들이 난리가 났다. 기후 문제로 인한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 것을 짐작하는 분위기다. 작은 벌이라고 무시해서는 큰코다친다. 인간사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다. 인간들의 공업(共業)은 지수화풍 인드라망은 끝벌들을 통해서도 보게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5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6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석학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스도쿠3650

컬러스도쿠110

중하스도쿠10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인드라망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9	1	2	8	6	7	4
6	8	4	7	9	8	9	2	1
1	2	7	9	6	4	8	9	8
8	9	1	8	7	9	4	6	2
7	4	9	2	1	6	9	8	8
8	6	2	8	4	9	1	9	7
2	1	6	9	8	7	2	8	9
7	8	6	9	1	8	4	9	8
9	9	8	4	8	2	7	1	6

8	2	1	9	9	4	8	7	6
8	6	9	7	8	2	9	1	4
4	9	7	6	8	1	2	8	9
7	8	9	1	6	9	4	8	2
2	8	6	8	4	7	1	9	9
1	9	4	8	2	9	7	6	8
6	4	8	2	1	8	9	9	7
9	7	8	4	9	8	6	2	1
9	1	2	9	7	6	8	4	8

여가·교육·돌봄 모두 도보 30분 ‘서울형 보행일상권’ 실현 첫걸음

서울시, 정릉·홍제·양재 등 8곳
‘보행일상권’ 시범대상지 선정
9월까지 조성계획 기준 마련

서울시가 시민들이 도보 30분 내에서 생활편의, 여가, 돌봄, 학습,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보행일상권’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서울시는 22일 서울 곳곳을 도보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자족적인 생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 정릉·홍제·양재 등 8개 ‘보행일상권’ 시범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행일상권’은 미래공간전략 지난 2022년 3월 발표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 팬데믹·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의 일상 중심공간 부상 등 생활양식을 반영한 도시공간 개념이다.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주거지 인근에서 다양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자족적 생활권을 의미한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 기준이 될 대상

지는 ▲평창·부암(종로구) ▲금호·옥수(성동구) ▲청량리(동대문구) ▲신길(영등포구) ▲정릉(성북구) ▲수유(강북구) ▲홍제(서대문구) ▲양재(서초구) 등이다.

서울시는 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한 계획 마련에 초점을 두고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역세권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한 보행일상권 조성 계획 ▲보행일상권 내 필수시설의 확충 계획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생활가로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서울 전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서울시는 지난 2023년부터 용역을 시행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보행일상권 개념을 국내외 n분도시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화하고, 7개 분야 40여 개의 보행일상권 필수시설을 도출했다. 해당 시설엔 생활편의, 공공·의료, 여가, 돌봄시설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지별 보행일상권 필수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설 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공급 방안과 관련, 공공시설의 경우 기부채납이나 공공기금 등을 활용하고, 민간시설은 지구단위계획 내 권장 용도로 유도하는 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울시민의 차별화된 ‘서울형 보행일상권’ 모델을 정립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역세권사업 등의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시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형 보행일상권을 전면 도입하기에 앞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앞으로 서울 전역에 100개 이상의 ‘작지만 강한’ 자족형 생활권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공공기관 일자리정책 추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교통공 ‘일자리정책’ 행한부장관 표창

작년 정원 34% 청년층 신규고용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공공기관 일자리정책 추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1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청년고용, 인턴제 운영 등 일자리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에 수여되었으며, 각 분야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지방공공기관 15곳이 선정됐다.

공사는 2024년 기준 정원 중 33.7%를 청년층으로 신규 고용했다. 이는

전국 지방공기업 평균(8.3%)의 4배 이상 높은 수치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선도적인 노력이 높게 평가받았다.

공사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직무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고, 신입 직원에 대하여 응시 자격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을 시행하는 등 청년 고용 정책을 적극 운영 중이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경기교통공사는 지방공공기관으로서 고용책임을 다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일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교육부,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 발간

딥페이크 성범죄 등 위험서 학생보호
피해 발생시 신속·정확 대응 일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교 디지털 성폭력 초기 대응을 위한 ‘디지털 성폭력 एस오에스(SOS) 가이드(5종)’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는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발표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안내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유형과 디지털 성폭

력 발생 시 학생·교사·학부 등 학교 구성원의 상황별 대응방법과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을 담고 있다. 대상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대학생용 등 학생용 3종, 교사용, 학부모(양육자)용으로 제작됐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대응 요령뿐만 아니라 친구나 제3자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의 올바른 주변인 역할도 안내하고 있으며, 가해행동을 했을 시 잘못된 행위에 책임지는 자세와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자녀 혹은 학생이 피해를 입거나 가해행동을 한 상황에서 학부모·교사의 적절한 대처 방안과 자녀·학생과 함께하는 예방 수칙도 안내됐다.

/이현진 기자

교대 선발인원 498명 감소… 수시 ‘세분화’

2026학년도 총 모집정원 3711명
수시 2524명, 전년비 150명 줄어

2026학년도 초등학교(교대) 입시는 전체 모집정원 3711명으로, 전년도보다 498명이 감소했다. 올해 교대 입시는 수시 전형 방식이 세분화된 한편, 일부 대학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한 것이 특징이다.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인원은 2524명으로 전년도보다 150명이 감소했다. 전체 수시 선발 인원 중 학생부종합전형이 2227명으로 전체 88.2%를 차지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11.8%에 해당하는 297명에 불과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대다수 대학이 1단계 서류 평가 후 2단계 면접을 실시

하는 단계별 전형을 기본으로 선발하지만, 공주고대, 이화여대, 춘천교대 등 일부 대학은 면접을 생략하고 서류 100%로 선발한다. 광주교대는 올해 일부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 대신 지원자 전원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는 일괄합산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교대 수시 경쟁률은 5.95대 1로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교대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경인교대, 광주교대, 서울교대, 이화여대, 제주대, 한국교원대에서만 실시된다. 교과 성적 외에도 서류나 면접을 병행하는 경우

가 많다. 서울교대 학교장추천전형은 1단계 교과 100%, 2단계 면접 20%를 반영하며, 경인교대도 면접을 병행한다. 광주교대는 면접 대신 학생부 내용을 20% 반영한다.

이화여대와 제주대는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해 지원자의 부담이 적은 가운데, 이화여대는 수능 2개 영역 합 5이내, 제주대는 3개 영역 합 8이내라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는 다수 교대에서 수능최저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경인교대 학교장추천전형은 기존 ‘4개 합 12등급 이내’에서 ‘14등급 이내’로, 춘천교대 교직적·인성인재전형은 ‘4개 합 12등급’에서 ‘3개 합 9등급’으로 완화됐다.

/이현진 기자

교기원, 오늘 교양교육 혁신모델 설명회

전국 197개 회원대학 대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이하 대교협)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하 교기원)은 23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대강당에서 전국 197개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전공자율선택제

안착과 기초학문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혁신모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양교육 혁신모델은 총 3가지 모델로 구성돼 있다. ▲기초학문 강화 모델(모델1): 기초학문 분야 전공의 모든 교과목 중 교양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

과목을 교양 교과목으로 이수 ▲자유학에 확장 모델(모델2): 기초학문 분야 전공 교과목 중 교양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교과목을 교양교육 과정에 개설 ▲자유학에교육(LAE, Liberal Arts Education) 모델(모델3) 전공자율선택제 1유형 입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에 교육을 구현 등이다.

/이현진 기자



▲금 선물 3500달러 돌파…트럼프-파월 갈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국가애도기간·에펠탑 소등…전 세계 추모물결
/사진 뉴시스

▲포브스 회장 “트럼프 관세 영향 美 경제, 1970년대 인플레이션 불러올 것”
▲한일 국교정상화 60년…261년 만에 ‘조선통신사’ 뱃길 열린다

▲‘바티칸 수교국’ 대만, 깊은 애도…조기계양·특사파견
▲사우디에 K-스마트팜 시범온실 착공…중동 첫 수출 거점 조성



KT&G
부동산 팔고
사업 재편
L1

metro®

Life

봄 건강 특집
봄철 환절기
면역력 관리를
L2



15개 계열사 모여 희망적립... 우리 함께 만든 '더 나은 세상'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올해로 설립 4년차를 맞은 '젊은' 공익재단이다. 역사는 길지 않지만 '취약·소외계층이 우리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기치 아래 해마다 사회공헌 규모를 늘리며 소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2022년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금융그룹 소속 15개 계열사가 자본금을 공동 출자해 만들었다. 우리금융이 기존에 운영했던 '우리다문화장학재단'과는 별도로, '금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란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이 목표다. 우리금융 계열사가 해마다 영업이익의 일부를 우리금융미래재단에 출연한다. 재단은 개별 계열사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재단은 지난 2023년부터 소외·취약계층의 생활 자립 및 성장지원에 사업비의 50% 이상을 배정해 중·장기적 사회공헌 활동의 비중을 크게 높였다. 2024년에는 ▲취약계층 ▲미래세대 ▲발달장애인 ▲제복공무원 등 핵심 지원 대상을 설정해 활동 목표를 구체화했다.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3 우리금융미래재단

◆ 소외된 우리 이웃... '취약계층 지원'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무료 치과 진료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질병에 취약해지는 여름·겨울철 맞춤형 지원을 시행한다.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 쪽방촌을 찾아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며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개시했다. 쪽방촌 주민 2500명을 찾아 의류·방한용품 등 겨울나기 용품을 제공하고, 아직까지 연탄 난방을 이용하는 가구를 위해 3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또한 재단은 같은해 12월 서울시, 사단법인 행동하는의사회와 연계해 쪽방촌 주민들에게 무료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우리동네구강관리소'를 설립했다. 2024년 말까지 '우리동네구강관리소'를 찾은 쪽방촌 주민은 294명으로, 재단은 2년 동안 2344회의 무료 진료를 제공했다.

특히 재단은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의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3년에는 서울시로부터 민관협력 우수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23년에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쪽방촌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안 정리 활동을 돕고, 수납용 가구를 제공하는 '쪽방촌 정리수납 지원사업'을 수행했다.

아울러 한파에 취약한 쪽방촌 가구에 방한 커튼 설치를 지원하고, 혹서기에는 '에너지 취약가구'를 선정해 여름나기 용품을 지원했다.

◆ 내일에 투자... '미래세대 지원'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소외·취약계층 가구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취약계층 청각장애 아동에게 개안수술 및 인공와우수술을 지원하는 '우리루키(Look&Hear)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출범 당시 지원 목표는 200명이었지만, 1년여 만에 당초 목표치의 두 배에 달하는 400여 명의 아동이 재단을 통해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재단은 올해부터 연간 지원 목표를 400명으로 상향했다.

또한 난치성 질환이나 희귀질환 아동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우리함께 더케어'도 운영 중이다.



우리금융미래재단 임직원들이 '굿월스토어'를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포즈를 취했다. /우리금융미래재단

설립 4년차 공익재단... 소외·취약계층 지원 앞장
취약계층 무료 치과진료 '우리동네 구강관리소' 설립
연간 400여명 청각장애 아동에 인공와우수술 지원
발달장애인 예술인 역량 강화... 전문작가 도약 도와
경찰·소방관·군인 등 '숨은 영웅' 가정에 장학금도



아울러 우수한 학업 잠재력을 지닌 취약계층 가구 청소년이 가정환경을 이유로 학업이나 진로 탐색을 포기하지 않도록 매년 '우리미래 서울러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고1·고2 학생을 선정해 학업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여름방학·겨울방학 기간에는 진로 탐색과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지원도 운영한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선배 자립 청년의 사회생활 경험 멘토링 기회를 주선하고, 독립을 시작한 청년들에게는 생필품과 생활 가전을 제공한다. 취업을 통해 첫 소득을 얻은 자립 청년들에게는 금융교육과 함께 저축지원금을 수여한다. 재단이 지난해까지 자립을

지원한 청년은 약 3000여 명이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발달장애인 지원'

직업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정한 수입을 위해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굿월스토어' 사업도 지원한다. 재단은 지난해 말까지 총 35개의 굿월스토어 매장 오픈을 지원했고, 440여 개의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했다.

우리금융그룹 차원에서 서울 소공동 본점에서 365일 운영되는 '굿월 기부함'을 설치해, 우리금융 임직원과 고객들이 굿월스토어를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단은 지난해 발달장애인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인 '우리시각'을 출범했다. 시각 예술 전문가 멘토를 구성해 발달장애인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향후 창작활동을 지속하며 전문작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포트폴리오 제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 숨은 영웅... '제복 공무원 지원'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취약·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경찰·소방관·군인 등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인 제복 공무원을 위한 지원 사업도 운영한다.

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복무 중 공상을 입거나 순직한 직업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 가정에 지원을 제공하는 '우리히어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히어로 프로그램을 통해 총 853개 가구에 생활비, 자녀장학금을 제공했다.

또한 재단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전·현직 군인과 그 가족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히어로 트라우마 치유 지원 사업'도 운영 중이다.

재단은 잦은 출동으로 문화 활동이 어려운 소방공무원을 위해 유명 팝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제복 공무원들의 일상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3년간의 사회공헌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소외·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금융미래재단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구축해온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나은 길을 만들고, 사회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공익재단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이정후, MLB 밀워키전서 적시 3루타 황...5경기 만에 장타 /사진 뉴시스
▲'6경기 4홈런' 타티스 주니어, NL 이주의 선수...AL 무어 수상

▲'K리그 데뷔골' 남태희, 제주 구단 '3월의 선수' 선정
▲리그 16위까지 추락한 토트넘, 마지막 희망은 'UEL 우승'

▲NBA 클리퍼스, 덴버에 105-102 승리...PO 1승1패 균형
▲'스마일 점퍼' 이상혁, 대표선발전 우승...시즌 첫 실외대회 정상